

Ⅲ. 위정척사운동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Ⅲ. 위정척사운동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1) 위정척사사상의 대두

위정척사사상이란 바른것(正)을 지키고 그른것(邪)을 물리치고자 하는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과 이념적 정향을 가리킨다.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변수의 작용으로 내부적 변신과 외부적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굳건한 민족주의적 저항을 선구적으로 보였던 사상이며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은 조선 5백년을 관통하는 주자학적 성리학사상이 거둔 마지막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리학적 배경에 대한 사상적 이해 없이는 위정척사를 논의하기가 어렵게 된다. 말하자면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은 조선 후기 서구제국과 일본세력의 침투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두되었지만, 그 사상적 연원은 조선 5백년을 관통하는 주자학적 정치이념에 두고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사상적 근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위정척사사상의 뿌리가 되는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원래 외환에 직면하고 있던 송나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민족적, 국가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던 당시 송나라에서는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정치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군신간의 도덕적 관계의 강화가 외적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주자학은 신분과 계급을 돌보지 않는 충절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성리학적 정치사상은 이러한 충절이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의무가 아

나라 가장 순결한 내심의 발동이며, 이것이 곧 천리라고 역설하기 때문에 성리학의 理氣 논리가 외적의 침입을 당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민족적 저항을 고취시키는 이념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었다.¹⁾

이렇듯 민족적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한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그러한 위기의식을 역사의식으로 전용시키면서 孔·孟 이후 단절된 춘추대의적 유교정치이념의 정통성을 재확립하고 老·佛 등의 이설을 이단으로 배척하는 한편, 종래의 세계주의적 중화사상을 민족주의적 정향 위에서 재편성하면서 강력한 배외적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게 되었다.²⁾

이와 같이 송나라 때 이민족에 대항하는 정치이념으로, 그리고 이설에 대해 정통을 지키는 문화이념으로 형성된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때 조선왕조에서 채택된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단순한 도덕적 가치체계나 학문체계를 넘어 새로 성립된 정치체제를 정당화하고 통치구조의 원리를 제공하는 국가이성(raison d'Etat)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건국 초에는 새로 받아들인 주자학적 정치이념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불사상은 물론 제자백가의 사상까지도 邪說로 간주하여 이를 신봉하는 자를 斯文亂賊으로 처단할 정도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주자학은 성종조에 이르러 왕조의 지도이념으로 완전히 정착되었으며 동시에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정통사상으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조선시대에 이러한 주자학적 정치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 정치집단은 士林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림은 국왕의 통치권과 밀착하여 정치적·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던 지배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왕조 정치체제에서 주자학적 정치사상을 이념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까지도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사림의 정치이념은 성리학적 德化敎民에 기초한 왕도정치,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至治를 강조함과 동시에 윤리적 차원에서 지치의 원리를 邪와 僞를 제거, 척결하는 데서 찾았다.

1)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乙酉文化社, 1977), 527~529쪽.

2) 《中庸》, 朱子 序文.

이와 같은 사림의 정치이념은 사욕이나 形氣에 따르지 않고 吾心에 명백히 변별함으로써, 모든 應事接物의 상황에서 ‘仕止久速’의 時中之義를 강조하고,³⁾ 정·부정의 정확한 분별에 따라 온당하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의’를 보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다는 것⁴⁾이라는 실천성과 함께 이와 같은 사림의 정치이념은 국내외로부터의 邪·僞·不義·不正의 도전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발현되어, 대내적인 정치적 모순에 대해서는 시비의 정도를 밝혀 내고 대외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민족의 자존과 보위를 사수하는 殉義정신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주자학을 정치이데올로기로 채용한 조선왕조가 이민족의 침략 앞에서 민족의 위기에 대처하여 적극적 저항의 자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념적 기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때의 자연발생적 의병운동, 병자호란 후의 북벌사상, 조선 말기의 대외항쟁을 위한 의병운동 등은 모두 그러한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연관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이념적 정향은 실천의 면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적어도 명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였음을 조선왕조의 정치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림의 정치이념이 조선시대를 관통한 주자학적 정치사상의 맥락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림의 주자학적 정치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론에 연결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사림의 주자학적 정치사상을 상황적 조건과의 관련이라는 현실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치체제 운영의 이론으로 재편성한 경세사상가로서 우리는 栗谷 李珥를 들 수 있다. 율곡은 조선 중기의 정치사상가로서 退溪 李滉과 함께 한국사상사에 있어 그 위치를 가지런히 하고 있는데, 퇴계가 형이상학적 사변의 차원에서 성리학에 치중했다면 율곡은 實事實用의 측면에서 성리학에 바탕한 경세론을 체계화한 정치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주자학의 이기철학은 후세에 氣質之性을 위주로 보는 주기적 경향과 本然之性을 위주로 보는 주리적 경향으로 나뉘어 이해되면서, 한국사상사에 있어서도 양자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이 제기되었다. 후자의 경향에 철저하게 충

3) 《孟子》, 公孫丑章句 上.

4) 《論語》, 爲政篇.

실했던 학자가 퇴계라고 한다면, 율곡은 비교적 전자의 경향을 중시했던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이 주기적 입장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가 이의 문제를 배제하거나 이의 비중을 경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퇴계가 理發氣發의 理氣互發說을 주장한 반면에 율곡은 氣發理乘의 이원론적 통합론을 제기한 것이다.

율곡은 “이는 形而上者요, 기는 形而下者이다.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이 이미 분리될 수 없으니 그 發用은 하나이며 호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⁵⁾라고 말한다. 그는 천지 조화와 품心の 발동이 모두 기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아 퇴계의 이기호발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천지의 化는 곧 품心の 發이다. 천지의 理化者와 氣化者가 있다면 오심도 역시 당연히 이발자와 기발자가 있어야 한다. 천지에는 이미 理化・氣化가 없는 데 오심에는 어찌 理發・氣發의 차이가 있겠는가(李珥, 《栗谷全書》 권 10, 書 2 答成浩原 壬申).

그는 위와 같이 반문하면서 ‘理氣元不相離 似是一物’이라고 철저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器材의인 有形有爲의 기 가운데는 활랑한 無形無爲의 이가 기의 주체자로서 乘之하기 때문에 양자가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없고 통합된 일체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이것은 “理氣雖二物而其體則一也 蓋一而二二而一者也”라는 ‘一而二’・‘二而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⁶⁾ 이와 같이 율곡의 성리학에 있어서는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거부하면서 理乘氣發一途說을 주장하여 이의 우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상계에 있어서 기의 역할을 중시하였으니, 이것은 이성적 인식과 동시에 감정적 인식을, 관념과 동시에 경험을, 도덕과 동시에 물질의 합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균형적 통합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율곡이 실사실용에 치중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균형논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 李珥, 《栗谷全書》 권 10, 書 2 答成浩原.

6) 李乙浩, 〈一而二의 構造的 性格〉(《韓國思想論叢》 1, 栗谷思想研究院, 1978), 147~175쪽 참조.

이와 같은 율곡의 철학적 기초는 그로 하여금 성리학적 정치사상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상황적 변수에 대응하여 그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장하게 한 것이다. 즉 그의 정치사상은 이념과 경험의 조화를 향한 철두철미한 정치적인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종조 이후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면서 오랫동안 태평무사한 세월을 보낸 나머지 점차로 사회적인 문약과 퇴폐, 문란이 증대하여 위로는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아래로는 토지·병역의 제도가 문란해지기 시작한 선조조에 이르러 이러한 폐단의 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율곡이 생존했던 16세기, 특히 그 후반은 대내적으로 정치사회적 폐단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방의倭와 북방의胡의 침략의 전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대였다. 율곡은 경연에서 講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中衰期로 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건국이 200년이 되었으니 이는 바로 中衰期에 들어선 것인데 거기에는 權姦들의 濁亂의 禍마져 있어 오늘날에 와서는 마치 노인과 같이 원기가 거의 쇠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李珣,《栗谷全書》권 30, 經筵日記 今上 14년 10월).

그는 ‘變法·更張’을 이러한 중쇠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종조의 법통을 지키는 길은 시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해 나가는 因時制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율곡의 정치사상이 성리학적 치도를 중시하면서도 실용에 바탕한 점진성이 결여되었던 趙光祖의 이상주의적 정치이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인시제외와 致用을 또한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그의 십만양병설 등은 이와 같은 정치적 리얼리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율곡의 사상은 沙溪 金長生을 거쳐서 尤菴 宋時烈에게 정통으로 이어진다. 우암은 이기론과 인성론에 있어서 철저히 율곡의 설을 취하였다. 그러나 우암의 사상이 퇴계의 이기론을 따르지 않고 율곡의 그것을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통적 성리학사상의 변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암은《朱子語類》에서 제시된 주자의 이기론이 ‘四端理發 七情氣發’이라고 하여 사단과

철정이 각각 이발·기발이라고 한 것은 후세의 잘못된 기록이라고 보고, 율곡의 이기론이야말로 주자사상의 가장 정확하고 정당한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우암은 이 문제에 관한 주자 자신의 진의를 구명하고자 《朱子言論同異攷》라는 고증적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⁷⁾

우암은 주자학사상의 본의를 추구하는데 주자학의 內省的·主情的 측면을 강조하였던 퇴계사상의 맥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주자학사상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의 독자적인 해석을 관철하려 했던 율곡의 사상을 취한 것이다. 우암은 율곡의 사상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사상가로서 “퇴계의 理發而氣隨之라는 논리는 큰 착오이다. 理는 情意·運用·造作이 없는 것이다. 이는 기 안에 있다. 고로 능히 운용·작위하며 또한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면서 이는 전혀 조작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性은 心の 理요, 情은 心の 動이며 意는 心の 計較이고, 心은 性·情·意의 主宰이다”라고 하고, “動하는 것은 心이요, 능히 動하게 하는 所以가 되는 것은 性이다”라고 하여 氣動理無動, 즉 心發性不發의 논리를 세웠다. 결국 우암은 ‘心是氣’을 주장한 것이다.⁸⁾

이 ‘심시기’의 견해는 실은 율곡이 먼저 제기하고 우암이 승계한 것인데, 이들이 심시기라고 한 것은 심의 작용이 기에 속하기 때문에 다만 심을 기라고 설명한 것이지, 심을 兼理氣의 뜻으로 專言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적 기조는 花潭 徐敬德이나 鹿門 任聖周 등의 唯氣一元論과는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율곡의 정치사상이 주기적 경향의 철학적 기초 위에서 형성된 정치적 리얼리즘이라고 한다면, 율곡의 사상적 맥락을 정통으로 계승한 우암의 정치사상 역시 주기적인 성리학적 기초 위에서 전개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율곡의 정치사상이 상황적 조건을 현실적 차원에서 고려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암의 정치사상은 이념

7)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三英社, 1982), 38~39쪽의 주 34.

玄相允, 《朝鮮儒學史》(民衆書館, 1978), 226~229쪽.

裴宗鎬, 《韓國儒學史》(延世大 出版部, 1978), 136~138쪽.

8) 裴宗鎬, 위의 책, 136~137쪽.

적 차원에서 명분론적 색채가 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테면 율곡이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사실용의 관점에서 십만양병설을 구체적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암은 춘추대의에 따른 尊中華攘夷狄의 논리를 친명배청의 정치적 이념으로 원용하여 호란의 원한에 차 있던 효종의 密諭에 응해서 북벌을 계획하였으니, 이러한 우암의 이념적 정향은 실사실용의 차원에서보다도 정치적 명분론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선왕조의 이러한 주자학적 정치사상의 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19세기 후반의 위정척사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조선 후기 성리학의 학통과 이에 기초한 정치사상의 맥락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9세기 전반에 와서 조선왕조의 정통적 성리학사상이 華西 李恒老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림에 의해서 재정비됨으로써 그 학통이 이어지고, 19세기 중엽 서세동점의 충격이 시작되자 조선 성리학사상의 정통성을 승계한 이들 사림은 성리학적 정치사상의 기초 위에서 척사 논의를 강력하게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주자학적 정치이념에 뿌리를 두면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위정척사론은 처음에는 서양의 이질문화가 도전해 오는 위기상황에서 이단에 대해 正學을 지킨다는 교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상운동으로 발흥된 것이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조선왕조의 국가적 지도이념이면서 동시에 사림의 정치이념으로 기능했던 주자학적 정치사상은 이후 퇴계와 율곡, 그리고 우암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점차 형식화·전통화함으로써 성리학으로서의 본질을 잃어 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실사구시의 실학이 등장하였으나 그 근본정신은 유교적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비판이나 배척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문제는 서학이라 일컬어지던 천주교가 영·정조시기에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는 전통적인 예교 질서를 파괴하는 교리 및 행동을 수반하고 있었다. 부모와 선조의 제사를 부인하고 전통적으로 최고선으로 존중되어 오던 효와 충의 가치를 절하시키며 삼강오륜의 질서체계를 파괴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주자학적 사상으로 규율되어 오던 전통사회를 위협하는 위협사상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그 교세가 점차 커지고 반유교적 정신과 행동이 실천적 차원으로 드러나게 되자 이를 邪學으로 규정하여⁹⁾ 배척하는 동시에 주자학적 정치윤리사상을 정학으로 지키고자 하는 위정척사론¹⁰⁾이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주자학의 한 특성으로서의 위정척사사상은 조선 후기 천주교(서양 문명)라는 이질적인 문화가 도전해 오는 위기의식의 상황에서 주자학적 유교 사상을 수호하기 위한 하나의 사상운동으로서 대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까지만 해도 위정척사사상은 이질적 문화의 충격에 부딪쳐 전통적 유교사상을 지키려는 정통의식의 반발작용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듯 처음에는 교학적 차원에서 하나의 사상운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위정척사론은, 조선왕조 말기에 이르러 점차 서구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노골화되고 그것이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와 파괴를 강요하는 구체적인 물리적 힘으로 다가오자, 강력한 민족적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한 구국의 지도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실 조선왕조 말기에 등장한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은 춘추대의와 벽위론을 양대 지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화이론적 세계관과 사대주의적 모화사상, 그리고 보수성과 배타성을 강하게 담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른것(正)을 지키고 그른것(邪)을 물리친다는 위정척사사상에서 正·邪의 내용과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주자학적 정치이념을 정으로 하여 지키고 천주교를 포함한 서양문명을 사로 규정하여 물리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시에 사대성과 보수성을 기본성격으로 하던 위정척사론이 그 후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민족의 자존과 자주를 지켜야 할 정으로 설정하고, 반면에 물리쳐야 할 사를 서구열강과 일제의 침략세력으로 규정하게 되

9) 천주교를 邪學으로 규정한 것은 정조 때 蔡濟恭의 劄子에서 비롯된다(鄭喬, 《大韓季年史》 권 1, 고종 3년 참조).

10) 衛正斥邪라는 말은 館儒 宋道鼎 등의 상소에 대한 정조의 批答 속에서 처음 발견된다(《承政院日記》, 정조 15년 11월 정축).

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대주의적 모화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던 위정척사사상의 성격도 민족자존과 구국애족의 민족주의사상으로 승화, 발전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2) 위정척사사상의 보급

(1) 위정척사사상의 정립

조선 말기에 대두된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은 華西 李恒老와 蘆沙 奇正鎭, 그리고 화서의 제자인 重菴 金平默 등에 의해 크게 보급되었다. 특히 화서의 위정척사론은 중암에 의해 보다 발전적으로 집대성되는 동시에 勉菴 崔益鉉에 의해 실천적 차원의 의병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毅菴 柳麟錫에 의해서는 의병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항일구국 독립운동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조선 후기에 위정척사론의 중요한 기초를 놓았던 중요한 몇 사람을 살펴보면 한 말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의 특성과 보급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에 위정척사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화서 이항로에 의해서였다. 화서의 위정척사론이 제기되던 19세기 후반은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서세동점의 국제적 격랑과 갈등 속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 당시 서구열강세력의 한반도에의 침입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의 정도를 넘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질서에 기초한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틀을 조선에 강요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경제와 사회, 문화체계의 전반적인 파괴를 수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구제국의 침략의 징후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위정척사운동을 촉발시킬 만큼 구체적이고도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1866년(고종 3) 프랑스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한 이른바 丙寅洋擾에 이르러서이었다. 병인양요는 서구열강의 자본주의적 팽창과 물리적 도전으로 조선이 처음으로 체험한 국제관계상의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조선의 자기안보와 경제적 자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화서는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성리학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위정척사론을 제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 사상의 큰 흐름은 개국 초기에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정착시키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정착시키는 데 공헌한 조선 초기의 학자들은 이상적인 국가운영 원리를 제시하면서 이를 실제로 한 번 실현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암 조광조이었다. 이들의 사상과 정책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사상적 맥은 퇴계·율곡을 거쳐 조선 후기까지 연면히 이어져 내려왔던 것인데, 바로 이러한 성리학사상의 대하적 흐름이 배경이 되어서 화서의 위정척사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통의 관점에서는 화서의 경우는 평지돌출과 같아서 어떤 스승에게서 직접적으로 학문을 전승받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율곡과 우암을 사숙한다고 스스로 말했을 뿐이다. 화서는 자신의 학통을 율곡과 우암에게 붙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암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화서는 19세기 중엽에 활동하면서 조선의 성리학을 정비하는 데 진력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선 후기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이하자, 성리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하여 이를 외세에의 저항을 위한 실천운동의 논리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사실 19세기 후반의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화서를 중심으로 한 유학자들은 비록 서구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나마 서구 자본주의의 도전을 국가적인 위기로 판단했던 것은 확실하다.¹¹⁾ 그들은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대응책을 강구했다. 즉 우리의 전통적 이념이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장기적 대책으로 자강아사의 이념에 따른 내수론을 전제로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밀려오는 외세를 저지하는 척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는데,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론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되던 이러한 內修外攘論의 선두 주자가 바로 화서이었던 것이다.

화서는 당시 주자학적 성리학에 입각하여 철저한 主理二元論과 理主氣客

11) 李恒老, 《華西集》 권 3, 疏筭 辭同義禁疏.

의 입장에서 19세기 중엽 조선의 대내외적 정치상황을 인식하였다. 즉 그는 기를 이에 복종시키는 주리적 理尊氣卑의 논리 위에서 조선왕조 본래의 정치체제와 질서를 이로 보고 외세라는 객체를 기로 보아 이에 대처하려는 자존적·자기수호적 의식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국난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이 때 화서가 그의 정치사상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이기론적 사유가 질서가치로서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한 인식으로서¹²⁾ 이것은 궁극적으로 1860년대에 있어서의 대외적 위기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타개책의 수립방향을 그러한 성리학적 기조 위에서 모색하고자 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리학적 기조 위에서 전개된 화서의 위기타개책은, 첫째는 민생의 문제 및 이와 관련된 내수적 통치론과 개혁론이요, 둘째는 대외관계에 관한 이론으로서의 척사론이었다. 대내적 측면에서 내수를 위해 화서가 강조하였던 것은 민본주의적 정치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치윤리 및 내정의 쇄신이였다. 그는 민생을 제일차적인 국가적 과제로 보고 정치체제 운영에 있어서 백성의 생활안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¹³⁾ 백성은 현실적으로 국가운영의 중요한 과제인 경제와 국방의 원천이며 본원적으로는 통치자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민본·위민사상은 곧바로 통치론과 내정개혁론으로 이어져 내수의 요체이며 척사의 전제로서의 군주의 수기정심과 극기정신을 역설하는¹⁴⁾ 한편, 토지제도의 정비와 부의 공평한 분배, 吏道の 쇄신, 그리고 단결된 민심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사기진작과 일종의 민병조직에 의한 국방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외적 측면에서 화서가 내세운 대응책은 적극적인 척화론이었다. 즉 병인양요를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이 분분할 즈음 동부승지로 부름을 받은 화서는 그 직을 사직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프랑스의 침입을 종사존망의 위급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싸워서 물리쳐야 한다는 主戰斥和論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2) 朴忠錫, 앞의 책, 202쪽.

13) 李恒老, 《華西雅言》 권 9, 嚮背.

14) 朴忠錫·柳根鎬, 《朝鮮朝의 政治思想》(平和出版社, 1980), 178~182쪽.

오늘날(양적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交와 戰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양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쪽 사람, 즉 國邊人의 주장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쪽의 사람, 즉 賊邊人의 주장이다. 전자를 따르면 나라의 衣裳之舊(조선문화의 전통)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에 따른다면 인류(한국인)가 금수의 지경으로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점이 양적과 싸우느냐 화친하느냐 하는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근본을 잡는 신념, 즉 秉彝之心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일이다(李恒老, 《華西集》 권 3, 疏筭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

이렇듯, 그는 당시의 국론이 화친하자는 주장과 싸워서 물리치자는 양설로 나뉘어져 있는데, 후자에 따르면 조선의 고유질서를 보전할 수 있지만 전자에 따르면 인류가 금수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니 싸워서 지키는 것이 몇 몇한 도리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서구세력에 의한 고유질서의 파괴는 곧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유지하여야 할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요 주체성에 대한 파괴 위협을 의미하였던 것이므로,¹⁵⁾ 이러한 서구세력은 마땅히 물리쳐야 할 양적에 불과하다는 인식논리가 바로 화서의 위정척사론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화서가 이러한 戰守論을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전제왕조의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근왕적 충의사상과 유교의 춘추학적 존양사상이 깔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적 상황과 동향을 모르는 단순한 경계심과 배타성만이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서구 물질문명과 열강의 침략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 성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목에 기초하여 조선왕조 정치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경제적 자존을 보존하려는 입장에서 그러한 전수설을 주장했던 것이다. 즉 그는 서구열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邪學을 퍼뜨리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서 자신들의 동조자를 구하고 우리의 실정을 탐지하여 후에 군대를 이끌고 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을 진창 속에 쓸어 넣고, 우리의 재물을 약탈하여 저희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데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서양의 물건은 민생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은 공업품들인데 비해 우리의 물건은 농산품인 관계로 교역이

15) 崔昌圭, 《近代 韓國 政治思想史》(一潮閣, 1981), 15쪽.

이루어지면 마침내는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매우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을 지적하였던 것이다.¹⁶⁾ 결국 화서의 주장은 단순한 화이론적 존양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 자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존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세기 후반 외세의 침입이 점증하던 시기에 주리이원론과 이주기객의 성리학적 기초 위에서 대내적으로는 내수론을,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외양론을 전개하면서, 화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학금단책과 양물금단책, 그리고 군사적 방어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서구는 사상과 학문, 그리고 종교, 특히 천주교를 통해 조선인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문화적 침투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학의 금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에 서양은 通貨通色을 통해 奇貨巧物을 만연시킴으로써 우리의 일용품을 고갈시키는 경제적 침투를 획책할 것으로 보아 양물금단책으로서 서양제품의 사용금지와 불용불매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양이 조선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무력약탈을 자행할 것으로 보아 서양세력의 직접적인 도전에 맞서 물리칠 수 있는 양병과 국민단합의 구축을 제창하였다.

특히 그는 율곡의 10만양병설과 임진왜란의 선례를 인용하면서 양병을 역설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정규군이 아닌 일종의 민병조직에 해당되는 義旅制度를 주창하였다.¹⁷⁾ 이렇게 볼 때 화서의 어양척사론은 초기에는 성리학적 본말론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내정개혁을 위한 논의에 치우쳤으나, 서양의 침공이 빈번해지고 이것이 위기로 파악되자 점차 군사적 차원의 방위론으로 구체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내수외양론의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한 화서에게 있어 정과 사의 판별기준은 춘추대의적 명분을 계승하는 존화양이론에 바탕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전혀 이질적이고 또 열등하다고 판단된 서양의 정치

16) 李恒老, 《華西集》 권 3, 疏筭 辭同義禁疏.

17) 李恒老, 《華西集》附錄 語錄, 권 4, 金平默錄 4 및 권 3, 疏筭 同副承旨兼陳所懷疏.

문화가 사로 규정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서의 존화양이론이 전적으로 모화적 사대사상에 기초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존화양이론에 따르면 만주족인 청나라 역시 北虜로서 夷에 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넓은 의미의 外, 즉 邪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은 주자학을 정통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중화로 자처했다.¹⁸⁾

여기서 우리는 화서가 조선의 문화적 우위를 전제로 문화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탈중속의 자주적 이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그가 그의 문인인 김평묵과 유종교를 시켜 찬술하도록 한 《宋元華同史合編綱目》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이 책에서 원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청에 대해 조선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이념적 정향은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적극적 저항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후일 저항적 민족주의운동의 한 연원을 이루게 되었다.

화서의 위정척사론은 그것이 비록 보수적이긴 하였지만 19세기 중엽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은연중에 민족적 자존을 내포하고 서양열강의 침투에 대해 일종의 민족주의적 반응을 보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양물금단에 대한 그의 정책 건의는 결과적으로는 그가 서구 자본주의의 팽창 추세에 따른 폐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정척사론은 외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외세와 손을 잡음으로써 나타날 피해를 내다 보면서 내수외양을 강조했다라는 점¹⁹⁾에서 현실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화서에서 발흥된 위정척사론은 이후의 위정척사사상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으며, 장차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항일투쟁의 민족자주운동의 원동력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 李恒老, 《華西集》 권 25, 雜著, 關邪錄辯 用夏蠻夷說.

19) 李光麟, 《韓國史講座》 V 近代篇(一潮閣, 1988), 137쪽.

한편 조선 후기 화서와 함께 위정척사사상을 전개하였던 두 기둥 중의 한 사람으로서 蘆沙 奇正鎭을 들 수 있다. 화서와 노사는 조선 후기의 위기상황에서 위정척사를 통해 정치체제와 민족을 보위하려는 방향에서는 같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성리학적 기초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화서가 理主氣客의 주리이원론적 입장에서 이기론을 전개한 데 비하여 노사의 이기론은 기를 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일원론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그는 이와 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기를 이 속에 포함시켜 하나(理一)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기를 一物로 생각한 것이다.

이 같은 노사의 唯理論은 이주기객의 주리이원론적 성리학체계를 대표하던 당대의 화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서가 주리적 입장에 서면서도 이기합일설에 반대함으로써 울곡적인 맥락을 잇고 있는데 비해, 노사의 유리일원론은 매우 독특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유리론은 “모든 日用形器에는 理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唯理遍在論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 관점에 의하면 어떤 형기든 그것은 이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상면은 道로 그리고 그 하면은 器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와 기의 구분만을 명확히 한다면 이가 하나로서 불변함은 근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²⁰⁾ 노사의 이러한 도기설은 그의 척사론 형성에 있어서 직접적인 논리적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 개국 직후에 대두한 ‘東道西器’의 논의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理主氣僕을 주장한 노사의 유리론은 서양의 충격이라는 상황적 변수와의 관계에서 위정척사의 대응논리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듯 노사는 서양세력의 침략을 맞아 이에 대응하는 성리학적 논리의 기초에서는 화서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서양의 도전이 마침내는 조선의 질서에 의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본 점에서는 일치한다. 화서가 주리이원론의 입장에서 19세기 중엽의 대내외적 정치상황을 인식하고 존화양이의 논리를 통하여 서구세력을 洋教와 洋賊이라는 두 개의 측면으로 구분한 후, 그것을 각각 이단과 이적이라는 화이적 성격으로 파악한 데 비해, 노사는 기를 이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유리론적 이주기복의 논리

20) 奇正鎭, 《蘆沙集》 권 12, 納涼私議.

위에서 서구세력이 마침내는 조선에 의해 극복되어질 것으로 보았다. 즉 화서와 마찬가지로 노사에 있어서도 조선은 이이고 서구세력은 기로 파악되었는데, 서구세력은 비록 물질의 면에서는 조선보다 우세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반해 조선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취약한 것이 보이지만 천명과 인륜에 따르기 때문에 이의 주체라고 보며, 기는 이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결국 서구세력의 도전은 조선의 질서에 의해 극복되고야 만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노사는 서양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대비책과 국력배양을 위한 내수론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제시한 내수론을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모순을 과감하게 분석하고 그것의 극복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²¹⁾ 그런데 그의 내수론은 대내적인 부패와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체제능력 상실의 상황에서, 대내적 정비를 통해 정치체제의 자기규제력을 회복하고 외양을 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장기적 대안으로서의 종래까지의 사변적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노사는 1866년 병인 <척사소>에서 서양의 내침을 보고, 이러한 도전의 상황을 海寇東來之兆라 하여 침략의 직전 단계로 판단하고 심각한 위기의식을 토로하였다. 그는 서양인이 내침, 상륙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서양신부의 살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내면적 욕구는 다른 데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서양인 내침의 내면적 의도를 첫째 정치적 예측, 둘째 경제적 착취, 셋째 문화적 예측, 넷째 사회적 파괴, 다섯째 도덕적 추락 등에 있다고 분석, 단정하였다.²²⁾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노사는 서양세력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책으로서 먼저 조정의 정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수립할 것을 역설하고 이 정책의 중점을 交通禁絶에 두며 교통금절의 세부적인 방안으로서 양물금단론과 내수외양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교통금절의 현실적 대책으로서의 양물금단론

21) 奇正鎭, 《蘆沙集》 권 3, 疏 壬戌擬策.

22) 奇正鎭, 《蘆沙集》 권 3, 疏 丙寅疏一.

에서 서양문명이 우세한 물리적 세력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의 현상으로 보면서, 그러한 서양세력의 도전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밀려오는 서구세력에 흡입, 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자성론을 제기하였다.

최근에 와서 양물을 좋아하고 탐하는 폐단이 있는 바, 이는 매우 상서롭지 못한 일로서 아마도 해구(서양)가 동래할 정조이니 관에 명하여 장사꾼이 거래하는 양물을 수색하여 거리에서 불사르고 이후에 거래하는 자는 외구와 통한 죄로 다스리면 백성의 뜻이 안정될 수 있을 것…(奇正鎮, 《蘆沙集》 권 3, 疏 丙寅疏一).

이러한 자성적 논리는 그 자체로만 보면, 성리학적 본말관에서 맴도는 것으로서 소극적인 위정척사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대내적인 부패와 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체제능력 상실의 상황에서 대내적 정비를 통하여 정치체제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외세극복을 위한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사는 “내수의 절목을 열거하자면 매우 번다하겠지만 그 요체는 結人心에 있다”고 하여,²³⁾ 내수 측면에서의 방책을 먼저 민중의 내면적 의지를 단합시키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단결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 또한 백성을 착취하는 정치를 금하고 사치하는 관습을 버리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연후에야 양적을 물리치고 국가를 보위할 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내수에 있어서 군주의 본분에 충실함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것이다.

1890년대의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노사를 포함한 척사론자들이 내수의 양의 근본으로서 군주의 養民德治를 강조한 것은, 당시 군주를 둘러싸고 정치를 농단한 집권층의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지도층의 도덕적 퇴폐가 민중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대외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3) 위와 같음.

그리하여 노사는 결인심의 동인을 군주 자신의 실천으로부터 파급되는 유교적 大同之心의 이념으로 귀결시키고자 했다. 즉 그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집권층에 의해서 국민과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밀폐되었던 당시 정치체제의 운영원리를 비판하면서, 민심을 모으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고, 서양의 무력도전에 대응해서 양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민심의 동향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인식하였으며, 최악의 경우 일선에서 외구를 맞아 싸우는 것은 상민출신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국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절감함으로써 민중의 차원에서 구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⁴⁾

나아가 노사는 그의 이러한 내수론을 〈壬戌擬策〉²⁵⁾을 통하여 실천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 〈임술의책〉은 노사가 진주민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상소형식으로 개진한 의책으로서, 이는 사변적 이기론에 입각한 종래의 유교적 선정론에 비하면 상당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특히 이 의책은 당시 지배계층의 정치적 부패에 대한 준엄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즉 그의 내수외양론은 국가적 위기의 원인이 대외적 도전에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히려 정치체제 내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한 체제의 약화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노사는 극도로 문란해진 삼정의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지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까지 인용하여 당시의 민요의 원인이 지배계층의 가렴주구에 의한 농민의 빈곤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세와 군역의 불공정한 부과가 결국 정치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정치적 불안의 근본적인 동인이 된다는 것을 신랄하게 파헤쳤다. 그리하여 그는 조세와 군역을 지배계층인 士族에게 면제시키고 있는 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민심을 모아 결인심하는 것이 정치체제의 안정을 기하고 그 능력을 강화하는 길인데, 이러한 결인심은 무엇보다도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개혁을 주

24) 朴忠錫·柳根鎬, 앞의 책, 185쪽.

25) 奇正鎭, 《蘆沙集》 권 3, 疏.

장한 사회경제적 폐단은, 첫째 서원과 이에 기생하는 유생의 민폐문제, 둘째 대토지의 사유화로 인한 공전제 이념의 붕괴, 셋째 배분의 불공정과 일부의 사치와 낭비풍조의 문제, 넷째 군역과 군포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심화, 다섯째 과거제도의 모순에 따른 부패와 낭비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²⁶⁾

유리론자로서의 노사는 이와 같이 당시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장단기적 대안으로서 ‘양물금단론’과 ‘내수외양론’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의 내수론이 사회경제적 측면의 구조적 모순을 과감하게 분석하고 그 극복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종래까지의 사변적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체제의 자강을 위한 그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의 논리가 근왕적 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혁을 지향하는 논리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점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내수론에 집권층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민중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정향이 1890년대의 외세의 도전에 대항하여 척사론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에 민중의 동원을 가능하게 한 이념적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조선 후기의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이 비록 근왕적 정치질서의 고수라는 보수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당하여 민중과 함께 최후까지 반제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역할의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위정척사사상의 심화와 확산

重菴 金平默은 그 학통으로 보아 화서 이항로의 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한 인물로서 조선 후기 위정척사론을 이론적으로 집대성하면서 심화, 확산시킨 사람이다. 그는 학문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화서의 주리론적 입장을 전승하였으며, 정치사상의 측면에서도 화서의 어양척사론을 한층 정교하게 심화시킴으로써 그 이후의 위정척사운동의 이념적 지주가 되었다. 그의 이론은 화서와 마찬가지로 주리이원론의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하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26) 朴忠錫·柳根鎬, 앞의 책, 186~187쪽.

崔昌圭, 앞의 책, 94~95쪽.

비롯된 인간관과 세계관 위에서 그의 정치사상의 핵심인 어양척사론을 전개하였다.

중암은 화서와 마찬가지로 인심도심의 문제를 이기의 개념과 연결시켜 그의 성리학적 기초를 구성하였다. 즉 그는 도심에도 이와 기가 있고 인심에도 이와 기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유리론이 아닌 주리적 이원론에 입각하였다.²⁷⁾ 그리고 중암은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도심에 있어서는 理가 주가 되고 인심에 있어서는 氣가 주가 되기 때문에, 도심에 인심이 복종할 때 비로소 모든 질서는 바른 관계로 안정된다고 주장함으로써 理命氣從의 주리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인심과 도심을 각각 음과 양에 비유하여 도심에 인심이 따를 때를 음양관계가 바르게 되는 상태로, 그리고 인심이 도심을 지배할 때를 음양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는 상태로 각각 보았다. 따라서 인심과 도심은 본래 서로 없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대된 관계로 바뀔 때에는 인심은 도심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 양자는 결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암의 이러한 논리는 그의 대서양관을 포함한 위정척사론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논리의 기반이 되었다. 그에 의하면 서양과 조선의 관계는 본래 상호 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당시의 서양은 이미 우리의 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코 함께 병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서양이 조선의 적이라는 이유를 그는 서양이 사사로운 욕심에만 빠져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는 욕망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구 세력을 가장 해로운 금수류로 단정하고 만약 그들과 교통한다면 경제가 침식되고 사교가 만연하게 되며 미풍이 추락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해독과 위험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척사의 절대적 당위성을 강조하였다.²⁸⁾ 또 유학적 가치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四端五品論과 五行說에 의하여 서양을 금수의 도로 규정하는 동시에 서세가 통교를 요구하는 이유를 경제·종교·정치 측면에서 구명하고 어양의 절대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와 같은 본말론적 논리의 틀을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재

27) 金平默, 《重菴集》 권 34, 雜著 海上筆語.

28) 金平默, 《重菴集》 권 38, 雜著 禦洋論.

적 질서를 분석하는 데에도 적용하여, 당시의 조선은 末利만을 추구할 뿐 本實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당시 서양세력이 횡행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잘못된 내부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중암은 화서에서 이어받은 주리이원론적 인식의 논리 위에서 당시의 국내외 상황과 서양세력의 본질을 파악하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의 내재적 피폐와 외세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內更張·外防禦의 내수외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이는 결국 自強我事만이 위기극복의 정도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서양을 비롯한 모든 이질적 세력들이 내침, 도전할 수 있는 틈을 준 것은 실은 대외적 원인보다도 누적된 내재적 모순들로 인하여 정치체제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치체제 능력의 강화, 즉 자강아사를 통해서만이 척외·척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중암의 위정척사론의 핵심은 자강아사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암은 이러한 자강아사의 구체적 정책들을 〈治道私議〉²⁹⁾에서 개진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첫째 反經과 正君, 둘째 養士詰戎, 셋째 정치적 충원과 관료체제의 재정비, 넷째 사회경제적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반경과 정군의 측면에서 그는 군주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유교적 常經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재적 모순이 심화된 원인이 조정과 백성 모두가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자강아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바로잡아 조정의 정치와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이념과 유교적 인륜도리를 새롭게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임금이 어진 정사를 행하면 백성들이윗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그들의 어른을 위해 죽게 될 것’³⁰⁾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최고 통치자로서의 군주의 正心正身이 선행되어야 조정이 바로잡히고 조정이 바로 설 때에야 비로소 개혁을 통한 경장과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

29) 金平默, 《重菴集》 권 35 雜著, 治道私議.

30) 《孟子》, 梁惠王章句 下.

하였다. 중암의 이러한 정군론은 궁극적으로는 통치리더쉽의 쇄신과 강화를 통해 당시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사힐용론은 〈치도사의〉의 내용을 구성하는 헌책 중에서 특히 적극적인斥邪自尊의 이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자존을 위해서는 실용적 인재를 배양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서세의 도전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武備를 강화해야 한다는 양면적인 정책이었다. 즉 養士란 사악한 이질적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도를 행하는 실천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방안이며, 詰戒이란 서세라는 도전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대항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제압해야 한다는 적극적 척사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암이 힐용을 강조하여 국방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화서의 척사론이 소극적 국방론을 제시한 점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서의 척사론이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여 비록 戰守說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전통적 국방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점에 비한다면, 중암의 詰戒論은 현실적 시각에서 진일보한 대안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정치적 충원과 관료체제의 재정비는 일종의 행정개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은 척신들의 세도정치로 말미암아 관의 기강이 문란하고 부패와 무능이 상당한 지경에 달하여 있었다. 중암은 이 점을 주목하여 사람의 재능에 앞서 문벌과 척족을 우선하는 병폐를 통박하면서 군주가 용단을 내려 기존 관료들의 자질을 품평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유능한 인물을 뽑아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왕조 5백년 동안 하급 관리에게는 녹이 없었는 바, 중암은 녹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곧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즉 그들이 녹을 받지 못하니 가림주구로 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관원들은 물론胥吏들에게도 충분한 녹을 주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개혁의 측면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과 농업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건전한 사회기풍의 진작을 강조하였다. 조선은 인구의 8할 이상이 농민으로 구성된 절대 농업국가이면서도 농토의 대부분은 농민이 아닌 명문대가

와 호족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빈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중암은 바로 이러한 모순된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아, 그 방안으로서 농가에 농토를 분배해 주고 井田法을 시행하여 토지의 매매를 금하며, 여러 대를 두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世家에는 分田制祿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농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소를 함부로 잡는 일과 산야를 마구잡이로 개간하는 일을 금하고 산림보호와 양곡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에 성공을 거두려면 사회적 낭비와 퇴폐를 막고 올바른 사회풍조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자강야사를 통한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내부개혁을 주장하면서, 중암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척양·척사의 논리를 심화시켰다. 그는 화서와 마찬가지로 외양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내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정책 대안의 제시는 화서에 비해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그는 “洋夷는 邪요 曲이고 朝鮮人民은 正이요 直이니, 洋夷는 禽獸인데 朝鮮人民은 人類”라는 위정척사의 전제 아래서 어양의 실천적 방안으로 政刑·築城·甲兵·軍糧·海防 등의 실제적인 물량면의 대비와 함께 지도자와 국민의 親上死長하는 不二心の 정신적 단결력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³¹⁾

나아가 그는 서양의 도전이 미치는 폐단을 종교 및 사상적 측면, 문화와 기술의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윤리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양의 종교와 사상은 유교적 범도에서 벗어나 있고, 그 기예는 천박함을 근본 속성으로 하고 있으며, 물자의 교역에서는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윤리는 위계질서와 상하구별이 없어 마땅치 못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서양세력의 침투 중에서도 경제적 측면의 폐해를 보다 더 유념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교역을 앞세운 서양의 자본주의적 팽창에 대하여 소극적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양세력이 가져올 해로운 중에서 통화의 폐해에 특히 관심을 보이면서, 그 폐단을 부정축재와 무리한 이득추구의 측면에서 지적하는 등 서양세력의 자본주의적 팽창에 따른 불공정한

31) 金平默, 《重菴集》 권 38, 雜著 丙寅回咨私議.

경제관계의 추구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막연하게나마 예견하고 있었다. 즉 경제적 측면의 통화가 通色을 수반하고 나아가 서양의 사상과 종교가 유입되어 사회문화적 주체성의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중암은 서양 내침의 영향 가운데에서도 특히 경제적 측면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이와 아울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엄격한 양물금 단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통화의 해악을 막기 위한 어양의 실천방안으로서 遠物(異物)을 배척하고 국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제적 자립책을 강조하였다.³²⁾ 물론 그가 통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양물배척을 주장한 것이 서구 자본주의세력의 팽창에 대한 근대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의 주장은 화이론적 틀에 입각한 이질문명의 수용거부라는 고전적 이단배척론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적합성 있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대내적 경제질서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의 터전 위에서 사회경제적 개혁과 군사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내외적 대책의 실천을 통해 자강아사를 이룩하는 것이 어양척사에 관한 정책수립의 바른 길이며 정치의 대도임을 역설한 것은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정통성과 주체성의 보전이라는 논리적 전제에서 보면 19세기 후반의 격동기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암에 이르러 종전의 대청관계 및 대일관계에 있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후일의 위정척사운동의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찾아볼 수 있다. 화서에 이르기까지의 대청관계에 대한 인식은 청나라가 夷狄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화이관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중암에 이르러 배척의 식은 병자·정묘호란 이후 물리적으로 주종관계를 강요한 적대세력이라는 현실적 이유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적이라 하더라도 중국을 지배하고 있고, 나아가 그들이 한반도에 침공할 때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이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면 以小事大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묵시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³⁾

32) 金平默, 《重菴集》 권 35, 治道私議.

33) 金平默, 《重菴集》 권 39, 雜著 鷺江隨錄.

이러한 논리는 강자 앞에서는 굴욕적이지만 무릎을 꿇어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수세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강아사하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 자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 후기 위정척사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말하자면 물리적 복속을 요구한 청에 대한 굴욕을 씻어야 한다는 민족적 자존의식을 표명한 것으로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인 국제관계 이념으로 기능했던 화이관이 정치적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전이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암에 이르러 대일관계의 인식 역시 변화하였으니 화서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왜양일체론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1870년대에 이르러 일본이 조직적으로 무력을 앞세워 침략해 오자 이에 대한 대항을 위해 척사의 대상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암의 이 왜양일체론은 면암 최익현 등의 척사론자들이 척사운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시킬 때 이론적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³⁴⁾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암의 위정척사론은 조선왕조 정통적 성리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의 급박한 대내외적 상황에서 이러한 전통적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하여 난국을 타개하려 했던 중암의 논리에는 여러 가지 모순과 무리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암의 위정척사론이 당시의 척사파를 중심으로 한 유림의 정치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19세기 후반 개항을 전후하여 전개된 위정척사운동의 이념적 한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그와 같은 보수적 정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주체성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살신성인의 각오로 분연히 일어서서 그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계속한 사실은, 그 후 일본의 한국침략과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근대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뿌리를 이루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중암의 위정척사사상은 한국의 저항적 민족주의이념의 한 연원이 되었다.

34) 柳重敎, 《省齋集》 권 58, 年譜.

柳麟錫, 《毅菴集》, 年譜.

金平默, 《重菴集》, 年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병인양요를 계기로 촉발된 위정척사론은 중암에 이르러 보다 심화, 확산되어 갔는데, 그 후 운양호사건을 빌미로 무력을 앞세운 일본이 개항 압력을 가해 오고, 조선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논의를 정하자 이에 격렬히 반대하는 이른바 병자척사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암은 오늘과 같은 국가존망의 일에 당하여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³⁵⁾는 각오 아래 일어나 문인 윤정구·유인석·유중악 등으로 하여금 척화소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관의 저지로 뜻을 못 이루자 화서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면암 최익현에게 서신을 보내어 斥和議疏를 내도록 권고하였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持斧伏闕斥和議疏〉이다. 중암과 면암은 화서 이항로가 살아 있을 때 그를 스승으로 한 동문이었으며, 또 화서의 학통을 이어받아 중암은 이론적인 면에서, 그리고 면암은 행동적인 면에서 위정척사사상을 확산, 발전시켰다. 지부상소는 이 두 사람의 협력관계에서 나오게 된 것인데, 실제로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조선 말기의 정치적 개혁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개항에 반대하였던 사람의 위정척사운동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되다가 김홍집이 청나라의 황준헌으로부터 받아온 《조선책략》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신사척사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1881년에 일어난 이 신사척사운동은 嶺南萬人疏라는 대규모의 집단적 위정척사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중암은 만인소를 올린 유생들을 찬양하는 격려문을 지어 성재 유중교와 연명으로 그들을 고무하면서 계속 척사운동을 펴면 각 도의 士民들이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격려문은 후일 위정척사운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³⁶⁾

그 후 중암이 영남만인소에 대해 격려하면서 예측한 대로 위정척사운동은 각 도의 유생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확대되어 나가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그 이전의 어떤 상소보다도 격렬한 내용을 담은 홍제학의 상소로 발전되었다. 이 상소의 내용은 당시 조정에서 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던 중신은 물론 국왕에 대해서도 죽음을 각오한 추상 같은 탄핵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

35) 柳重敎, 위와 같음.

36) 金平默, 《重菴集》, 年譜 및 柳麟錫, 《毅菴集》, 年譜.

니, 마침내 홍재학은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한 후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으며 중암은 먼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 후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나 모두 좌절을 겪는 동안 위정척사운동은 잠잠했으나, 1895년 10월 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살해되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위정척사운동은 의병운동으로 동태화되면서 항일구국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게 되었다.

〈李澤微〉

2.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자본주의적 산업혁명을 거친 서구열강과 일본의 세력들은 제국주의국가로 무장하여 시장과 원료를 찾아서 조선으로 진출해 왔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이른바 서세동점이라는 역사적 과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866년(고종 3) 프랑스군의 강화도 침입으로 일어난 병인양요, 1871년의 강화도에 대한 미국의 침입으로 일어난 신미양요, 1876년 일본과의 불평등한 병자수호조약체결, 1882년 구미제국과의 통상의 확대, 1895년의 을미사변, 1905년의 을사조약체결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치르면서 조선사회에는 위기의식이 충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적 위협 앞에서 조선은 이들의 반식민지나 식민지로 전락하여 민족과 국가의 상실을 경험할 급박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급박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면 조선은 대내적·대외적으로 근대적인 자주독립국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우세한 물리적 힘을 갖고서 불평등한 세계질서로의 편입을 강요하며 밀려오는 열강의 팽창세력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이미 해체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던 조선사회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하였다. 그렇게 될 때 조선사회의 자주와 자강을 이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자주독립국으로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력들에 의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나타났다. 위정척사운동은 바로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다.

위정척사운동은 1876년 병자년 일본과의 불평등한 수호조약체결, 1881년 신사년 구미제국과의 개국통상 확대를 계기로 치열하게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대궐 앞에 엎드려서 호소하는 복합상소, 도끼를 끼고 대궐 앞에 엎드려 호소하는 持斧伏闕, 그리고 집단적 상소 등과 같은 과격한 행동이 나타났다.

즉 1876년 정월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유생들이 홍재귀를 疏頭로 하여 1만 명이 집단적으로 상소문을 올려서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을 인간과 금수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위기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수호조약체결을 반대하였다. 하나는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은 우리 나라를 유린할 것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론과 다른 하나는 일본과 교역하게 될 때 일본의 무한한 탐욕이 우리의 생로를 마구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경제적 파멸론이었다. 1881년에는 영남유생들이 합심하여 만인소라는 상소문을 올려서 국가의 개국통상정책에 반대하였다. 만인소는 1881년 2월 이퇴계의 후손인 영남유생 이만손을 소두로 하여 《朝鮮策略》을 반대하기 위해 올린 유럽의 집단반대 상소문이었다. 이들은 만인소에서 러시아·미국·일본은 모두 이적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차이를 둘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들어와 통상과 토지를 요구할 경우 우리 나라는 발불일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위정척사운동은 1870~1880년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났지만, 이 운동의 시작과 끝은 이 시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정척사운동의 시작은 일찍이 천주교를 배척한 1791년(정조 15) 신해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신해박해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라도 진산에서 천주교 신자 尹持忠이 어머니상을 당해 그의 종제 權尙然과 더불어 祠板을 불태우고 장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어났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의 입장을 대변하여 유생 宋道鼎이 천주교를 반대하는 척사상소를 올렸다. 이

에 대해 정조는 “이번 일은 조정이 辭教까지 내려 선조의 戊寅處分보다도 몇 배의 힘을 쓰고 있다. 소정한 대로 조정은 처분을 明賜할 것이니 그대들은 물러가 위정척사의 임무에 더욱 힘쓰도록 하라”¹⁾는 비답을 내렸던 것이다.

그 후 1900년대 위정척사운동은 을사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해 가자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운동으로 변용 합류되어 갔다. 1905년 11월 17일 밤에 체결된 ‘을사조약’은 12월 16일 황성신문의 논설 ‘是日也放聲大哭’을 통해 그 전말이 폭로되었다. 이로써 을사조약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다. 당시 유림의 입장을 대변한 崔益鉉은 1905년 12월 3일 〈請討五賊疏〉를 올려서 을사조약에 함부로 도장을 찍은 오적, 즉 외무대신 朴齊純, 내무대신 李址鎔, 군부대신 李根澤, 학부대신 李完用, 농상공부대신 權重顯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반대상소가 을사조약을 무효로 돌리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최익현은 1906년 2월 태인의 武城書院을 중심으로 강회를 연 후 전국 사우에 보내는 격문을 지어 총궐기를 촉구하며 의병봉기에 나섰다. 그는 1906년 윤4월 11일 〈倡義討賊疏〉를 올려서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의 생민을 해롭게 한 늑약을 만국공론에 부쳐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 국가의 자주권을 잃지 않도록 하며 생민은 易種之禍를 면하는 것이 신이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부르짖고 있었다.

이와 같이 위정척사운동은 한국의 근대사와 호흡을 함께 하며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사회에 끊임없이 밀어닥친 위기상황과 그로 인하여 전 사회에 증폭된 위기의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위정척사운동이 뚜렷한 이념, 조직적인 주체세력 그리고 민족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위정척사운동의 이념은 위정척사사상이다. 위정척사사상은 이 용어가 의미하듯이 ‘바른 것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물리치고자’ 하는 사

1) 李晩采 編, 《關衛編》상(關衛社, 1931), 43~44쪽에서 재인용.

상이다. 여기서 바른 것이란 원래 正學, 구체적으로 공자·맹자·정자·주자에 이르는 유교적 학통사상을 의미한다. 조선사회에서 이것은 이러한 학통을 집대성한 朱子學一尊主義이다. 따라서 좁게는 비주자적, 넓게는 비유교적인 사상조류는 이단사설이 되고 배척해야 될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위정척사사상은 서구의 충격이 있었던 근대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려 말 주자학을 수용한 이래 조선사회의 고유한 체제적 이념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은 단순히 사상의 차원에 한정되지마는 않았다. 조선사회에서 유교, 좁게 주자학은 전근대사회체제의 이념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은 사회제도와 문화어로 확산 적용되었다. 유교적인 사상을 구현한 사회제도와 문화는 바른 것이 되어 지켜져야 할 것으로 규정되고 비유교적인 사회제도나 문화는 사악한 것으로 규정되어 타협되거나 허용될 수 없었다. 더구나 유교적인 사회제도나 문화를 위협하는 성격을 지닌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사악한 것으로 규정된 비유교적인 사상이나 사회제도는 역사발전과정에서 다양한 내용과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동양 대 서양의 이데올로기적·무력적·경제적 대결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근대의 여명기에서 배척의 대상은 바로 천주교와 서양의 실체였던 자본주의적 침략, 무력적 침략이 되었다. 예컨대 1791년의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때는 천주교, 1866년에는 서양, 1876년에는 일본, 1881년에는 황준헌의 《조선책략》, 위정척사운동의 변용·발전이 이루어진 1895년과 1905년에는 일본 등이 바로 구체적인 ‘邪’로 규정되어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이들이 내포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나 사회질서 또한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즉 1870~1880년대에는 개항과 이로 인해 맺은 불평등한 국제관계 및 개항체제에서 나오는 근대적인 문물제도, 1890~1900년대에는 일본의 민족적 자주권의 침해 등이 바로 배척해야 할 것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위정척사운동의 주체가 조직적 결속력을 가진 유럽이었다는 것도 이 운동이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유럽이 일반적으로 조직적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유학에 의해

사상적으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상적으로 통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림은 무엇보다도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하여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였다. 그래서 유림은 강하게 통일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만큼 유림의 조직은 그 어느 사회집단이나 신분에 못지 않게 견고하였다.

우선 유림은 신분제 조선사회에서 양반신분이었다. 또 유림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향촌사회에 거주하는 재지 중소지주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은 직접 생산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가와 토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유림은 유학독서를 업으로 하며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투철하게 갖고서 일상생활에서 儒行을 실천하였다.

따라서 유림은 봉건적인 조선사회에서 많은 기득권을 갖는 지배집단의 한 분파이었다. 비록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관직이 관인집단에 의해 독점되어 감으로써 유림이 권력의 핵심에서 점차 소외되어 갔으나 이들은 조선사회에서 어디까지나 지배집단으로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권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유림은 자신이 거주하는 향촌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유림은 집권세력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중앙정치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였던 통로는 상소제도이었다. 상소제도는 원칙적으로 왕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었으나 사실상 전직관료, 재야유림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유림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지도자로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역행정체계 및 지배집단과의 관계를 통합시켜 나가는 기능을 하였다. 중앙정치에 대하여서도 여론을 통해 참여하는 재야정치집단으로 기능하였다.

더구나 서세동점이라는 역사적 변화의 물결은 그들의 이해관계, 기득권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당시 배척해야 할 대상인 ‘邪’로 규정된 역사변화의 물결, 즉 서양이 몰고 오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비유교적이고 근대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사상, 그리고 華夷의 세계관과는 다른 개항체제라는 세계관의 도입은 바로 유림의 기득권이 확보되어 있는 봉건적·유교적 사회체제와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기득권이 역사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유림

은 동질적인 박탈감을 공유하였다. 이 점 또한 더욱더 그들의 조직적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유럽 가운데서도 위정척사운동의 핵심주체는 華西 李恒老 문하의 제자들이어서 보다 더 조직적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예컨대 金平默(1805~1882), 洪在鶴(1848~1881), 柳重敎(1821~1893), 崔益鉉(1833~1906), 柳麟錫(1842~1915), 宋秉璿(1836~1905) 등이다. 이들은 역사적 사건의 고비고비에서 위정척사론을 심화, 발전시키고 몸소 실천하였다.

이항로는 1808년(순종 8) 覆試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부정을 개탄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여 재야유림을 대표하던 유학자였다. 병인양요가 일어나던 1866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하여 집권세력이 求言의 절차로서 재야유림의 대표인 이항로에게 9월부터 한 달이 채 못 되는 사이에 4회에 걸쳐 관직을 제수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항로는 8회의 사직소를 올려 병인양요에 대한 위정척사론을 폈었다.

김평묵·유종교는 1880년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청나라 사람 황준현의 《조선책략》이 정치개혁과 각국과의 외교를 건의한 내용의 것임을 알고서 위정척사론을 폈었다. 특히 김평묵은 1881년 7월 강원도 유생 홍재학의 척양척왜를 주장한 상소문을 대필하여 위정척사론을 펴고 위정척사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문구와 뜻이 매우 극렬하여 왕의 분노를 사서 소두 홍재학은 참형을 당하고 대필자인 김평묵은 유배당하였다.

최익현은 1876년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일본과의 조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로 인하여 그도 흑산도로 귀양가야 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의 위정척사론과 위정척사운동의 방법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초기 상소에 의한 평화적 위정척사운동으로부터 점점 의병봉기를 통한 무력적 정치투쟁을 동원한 위정척사운동으로 변화하였다. 즉 1879년 흑산도 귀양으로부터 돌아온 후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곧 이어 친일정권에 의해 단발령이 공포되자 최익현은 1895년 6월 26일 〈請討逆復衣制疏〉를 올려서 위정척사운동의 선봉에 나섰다. 그 후 1905년(광무 9)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은 다시 반대상소를 올리는 한편 의병을 일으켜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병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최익현은 일본 대마도경비대에 끌려가서 1906년 결국 옥사하였다.

송병선은 위정척사운동을 순국으로써 실천하였다. 그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한 나머지 수일간 단식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나라 망하고 道 망하고 인류 또한 멸망하게 되니 내가 처할 곳은 오직 하나 死字²⁾뿐”이라고 단식하고 의관을 바로잡고 북향사배한 후 음독자결하였다.

이와 같이 위정척사운동은 집단 정체성이 강하고 조직력이 튼튼했던 유림에 의해 일어났지만 유림의 조직적 결속력만으로는 위정척사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는 없었다. 위정척사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정척사운동에 공감하거나 이 운동을 지지하는 저변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위정척사운동에 공감했던 대표적 저변세력은 일반 민중이었다. 특히 위정척사운동이 외세의 침략행위를 ‘사’로 규정하여 배척하고자 했던 척사론은 민중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외세의 침략이 경제적 침략을 내포하며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민중도 당시 열강이나 일본의 팽창적인 자본주의 경제적 침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과정에서 민족적 모순을 첨예하게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일반 민중은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변화의 물결을 ‘사’로 규정하면서 민족의 자주와 자존, 생존을 지켜 나가고자 한 위정척사운동에 공감하고 이 운동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조일수호조규에 의해 부산·원산·인천의 세 항구가 개방되자 외국무역이 확대되었다. 외국무역의 확대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더욱 촉진시킨 반면 무역적자의 증가, 토착수공업의 성장 저지, 국가등귀 등 조선의 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우선 무역의 주요 상대국인 청나라와 일본이 영국제 면제품을 들여와 싸싸게 팔고 조선은 곡물과 금을 헐값으로 수출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다. 영국제 면제품의 수입량은 1893년경 조선인 면포 총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의 면포수공업자는 물론 가내 부업으로 면포를 생산하던 농민들의 성장이

2) 宋秉璫, 《淵齋先生文集》 권 4, 遺疏 을사 12월 29일.

저지당하였다. 곡물수출은 농산물의 상품화를 확대시키고 쌀값을 등귀시켰다. 곡가등귀는 농민·도시민민의 생활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 곡물수출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민중의 불만은 곡물무역에 종사하는 일본상인, 조선상인, 그리고 근대화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곡물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1880년대 후반부터 민중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것듯이 위정척사운동은 당시 비유교적인 새로운 문명과 제도가 조선사회를 향하여 밀려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비유교적이거나 반유교적인 사회변동에 저항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해체되어 갔던 조선 전근대사회의 유교적인 사회문화와 사회질서를 옹호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운동은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정척사운동은 대외적으로 경제적 침략을 내장한 채 밀려오는 외세를 배척하여 민족의 자주와 자존을 지켜 나가고자 하였고 때문에 일반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개항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어 외세의 내정간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선에 심각한 주체성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던 1876년 이후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지는 더욱 확산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위정척사운동은 비록 유럽이 주도적으로 벌여 나갔지만 전 민족적 저항을 기반으로 외세의 침투가 본격화되는 1860년대부터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면면히 그 힘을 유지해 갈 수 있었다.

1) 병자년의 위정척사운동

조선에 불평등한 국제관계를 강요하는 서구열강의 노골적인 개항의 요구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866년 통상조약 등을 요구하며 프랑스함대가 밀려왔던 丙寅洋擾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병인양요는 단순한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 값싼 원료와 넓은 상품시장, 자본의 투자대상을 찾아 나선 서구열강의 경제적 침략이었다. 따라서 병인양요는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조선사회를 불평등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서구열강

의 도전이었다.

이러한 도전을 맞아서 당시 집권세력은 대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야 유럽의 대표자인 이항로로부터 정책을 구하였다. 이항로가 병인양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올린 상소에는 척화주전론과 양물배척론이 피력되어 있었다.

이제 국론이 交・戰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洋賊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측의 주장이요, 양적과 和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적 쪽의 주장입니다. 전자처럼 하면 우리 나라가 옛 풍습인 衣裳之舊를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처럼 하면 인류가 禽獸之域에 빠지고 맙니다(李恒老, 《華西集》 권 3, 辭同副承旨兼陳所懷疏, 병인 9월 13일).

위와 같이 이항로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대저 洋物이 전래되어 그 종류가 매우 많으나 대체로 奇技淫巧의 물건이니 민생의 日用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禍가 되는 것이 심합니다…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의 물건 만드는 일은 손에서 생산되어 日計로도 남음이 있지만, 우리의 물건 만드는 일은 땅에서 생산되어 歲計로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여유가 있는 것과 교역한다면 우리가 어찌 곤궁해지지 않겠으며 일계를 가지고 우리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면 저들이 어찌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李恒老, 《華西集》 권 3, 辭同義禁疏, 병인 10월 3일).

또한 이항로는 서양과의 수호통상을 반대하는 ‘양물배척론’을 주장하였다. 당시 집권세력은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여 강경한 쇄국정책을 취하였다.

우리 나라 布帛은 아름다워서 원래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근일에 양화가 거의 전국에 편만하여 이미 식자들의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이다. 그러므로 양인들의 교역요구를 심상히 생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뒷날의 무한한 우려가 될 것이다(《備邊司謄錄》 251책, 고종 3년 7월 30일).

그리고 조정에서는 10월 ‘三江을 搜驗하여 양화가 적발되면 灣府(의주)에서 先斬하고 뒤에 아될 것³⁾을 명령하고 동래로부터 유출되는 양물도 탐찰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交買하는 자는 선참 후계하도록 명령을 내리었다.

3) 韓沽昐, 〈開港當時의 危機意識과 開化思想〉(《韓國史研究》 2), 1968년, 110쪽.

1870년대에 들어서자 이러한 상황은 급변하였다. 우선 미국·프랑스에 이어 일본도 조선을 침략해 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무력으로 개항시킨 방식을 모방하여 조선에 대하여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하고 1876년 초에는 이 사건을 구실로 부산항에 군대를 불법 상륙시켜 조선인을 살륙, 약탈하고 개항을 요구하였다.

당시 집권세력은 민씨와 그 일파였다. 이들은 1873년 11월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새로이 권력엘리트로 등장하였다. 새 권력엘리트로 등장한 민씨와 그 일파는 대원군시기에 확대, 정비했던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지 않아서 일본의 무력 위협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을 못 갖추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관료 중에는 개국통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북학과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를 경험하고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개국통상론은 김옥균·박영효 등 당시 세도가문출신의 젊은 관료들과 일부 중언충에게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또 조선의 대신들 가운데는 그 동안 건문을 확대하여 정세의 변천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1871년 조인된 청일수호조규에서 일본이 청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하였다는 사실이 조선에 전해졌다. 또한 1872년 回還冬至正使 閔致庠은 일본사신이 청국에 가도 신하로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신으로 칭하지 않고 대등의 예로써 조약을 체결한 일을 보고하였다. 1873년 回還進賀正使 李根弼은 일본사신이 양선을 타고 가서 양복을 입고 황제를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는 조선의 조정으로 하여금 청이나 일본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민씨 일파 중심의 집권세력은 일본의 무력 위협에 대응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고 박규수 등의 개국통상론과 청나라 사신의 권유를 받아들여 문호개방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드디어 1876년 2월 조선은 일본과 ‘朝日修好條規’를 맺고 7월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잠정적 통상협정인 ‘조일무역규칙’을 조인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병자수호조약은 일본이 특명전권 구로다(黒田清隆) 일행을 파견하여 강화도담판을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 조약이다. 이 조약체결은 일찍이 일본이 1868년 國制一變, 이른바 명치유신을 통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書契문제의 발단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일본은 종전까지 문화적 차등질서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 오던 조일양국 관계에 대한 집요한 개선을 거의 7~8년 동안 요구해 왔었던 것이다.

병자수호조약체결은 조일양국 관계를 종전의 조선의 일본에 대한 문화적·경제적 우월을 전제로 한 차등적인 교린질서로부터 통상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개항질서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 개항질서의 성격은 ‘형식상 각각 자주권을 갖는 양국의 평등한 외교관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양국간의 자유통상을 생산력이 월등한 팽창적인 경제단계와 아직 그렇지 못한 미약한 경제단계를 동등한 경제적 책임으로 묶어 두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특히 무관세무역·치외법권·일본화폐사용 등을 허용한 것은 조선의 사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조약의 성격을 지녔다.

집권세력의 개항정책으로의 급선회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다. 특히 화이적 세계관 속에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유럽에게는 더욱 그러하였다. 왜냐하면 1876년의 개항은 일본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에 기초한 교린질서를 근대 서구적 질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1854년 개항을 하고, 1868년 명치유신을 단행하여 서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개항은 바로 서양문물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유생들은 척사상소를 올려 개항정책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병자년의 위정척사운동은 병인년보다 그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는 상소운동의 방식이 지부복궐의 결사반대나 복합상소와 같은 방식의 반대상소를 올린 것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병자년 정월 홍재귀를 소두로 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상소문을 올려서 당시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본과의 수호조약체결을 인간과 금수의 갈림길을 결정짓는 위기상

황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상소문에서 수호조약을 반대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일본이 들어오면 일본은 우리 나라를 유린하고 말 것이라는 국가적인 자주의 문제이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과 교역하게 될 때 일본의 무한한 탐욕은 우리의 생로를 마구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경제적 파멸론이었다.

丙·丁사건(병자호란과 정유호란)은 華夷에 관한 문제이지만 오늘의 사건은 人獸에 관한 문제입니다. 華로서 夷가 되는 것은 오히려 말할 수 있지만, 인류로서 禽獸가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때에는 名義所關이 크게 문제되었으니 저들의 뜻은 오직 중국을 僭主하고 우리를 臣妾으로 하는데 있을 뿐 財帛과 부녀에 대한 끝없는 탐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역을 지키고 관방을 엄하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선왕의 예약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의 사정은 저들이 비록 군신이란 이름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번 상통하게 되면 장차 일용으로 상접하여...우리의 풍속을 파괴하고 우리의 生路를 끊게 하는 것이 끝없이 미칠 것입니다(金平默, 《重菴集》 권 5, 京畿江原兩道儒生論倭洋情迹仍請絶和疏, 疏首: 洪在龜 병자년 정월).

개항에 대한 위기인식은 특히 개항반대세력인 유림의 대표로서 상소를 올려서 위정척사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최익현에게서 더욱 체계화되어 나타났다.

최익현은 187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고서 이 직을 사퇴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대원군의 집정에 반대하고, 같은 해 11월 3일 다시 호조참판을 사직하는 상소에서 국왕의 친정을 요구하는 ‘五條大義’를 개진하여 집권세력의 교체를 도와 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최익현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1875년 3월에 풀려났다.

바로 이듬해 그의 나이 44세가 되던 1876년은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었던 해이었다. 1월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직전, 그는 당시의 상황을 ‘華夷人獸의 갈림길’이라는 위기상황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그는 도끼를 들고 광화문 앞에 엎드려 일본과 강화하면 조선은 어지러워져 망할 것이라는 병자개항과 수호조약체결을 반대하는 그 유명한 〈持斧伏闕斥和議疏〉(병자 정월 22일)를 국왕에게 상소하였다.

당시 개항추진세력은 쇄국정책을 바꾸어 일본과 수호조약을 맺기 위하여

외세배척의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왜양분리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즉 그들이 내세운 왜양분리론은 일본과 옛날의 호의를 잇는 것이지 서양과의 호의를 닮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왜양분리론에 대하여 최익현은 왜양일체론으로 맞대응하였다. 그는 옛날의 왜인들은 이웃 나라였으나 지금은 寇賊이며 그 근거는 이들이 서양 옷을 입고 서양대포를 사용하며 서양배를 탔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과의 호의를 닮는 것은 바로 서양과 화친을 맺는 것을 결과할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전하의 뜻은 저들이 왜인이고 洋胡가 아니며 그 말하는 것이 옛날 호의를 닮자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면 왜와 더불어 호의를 닮는 것이 또한 어찌 道義에 해롭겠는가 하지만...설사 저들이 참으로 왜인이고 양호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인들의 실정과 자취가 예와 지금이 현저하게 달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의 왜인들은 이웃 나라였으나 지금의 왜인들은 寇賊이니...왜인들이 구적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서양옷을 입고 서양대포를 사용하며 서양배를 탔으니 이는 서양과 왜가 일체인 증거입니다...그러니 왜와 더불어 옛 호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얼른 듣기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왜와 더불어 옛 호의를 닮게 되는 날이 바로 서양과 더불어 화친을 맺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崔益鉉, 《勉菴集》 권 3, 持斧伏闕斥和議疏 병자년 정월 22일).

뿐만 아니라 최익현은 일본과의 화약은 저들이 강함과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약함을 보여 체결된 것이므로 한번 화약을 맺으면 이는 우리측이 대비가 없어 겁이 나서 청하는 눈앞의 고식지계일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은 듣건대 강화가 저들의 애결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강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족히 저들을 제어할 것이니 그 강화를 믿을 수 있으나, 그 강화가 우리의 약함을 보인 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주도권이 저들에게 있는 것으로서 저들이 도리어 우리를 제어할 것이니 그러한 강화는 믿을 수 없습니다. 신은 감히 알 수 없거니와 이번의 강화가 저들의 애결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보인 데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내느라 방비가 없고 두렵고 겁이 나서 강화를 청하여 눈앞의 우선 좋기만 한 계책을 세우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알아 비록 속이려 하지만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방비가 없고 약함을 보이는 실제를 알고서 우리와 더불어 강화를 맺는다면 이

뒤의 저들의 무한한 욕심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나아가 최익현은 일본이 강요하는 강화조약의 부당성을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이것이 곧 그의 ‘五不可論’이었다. 최익현이 일본과 통상무역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물화는 한정이 있는 반면 일본의 요구는 끝이 없어서 이로 인해 결국 개항이 우리 나라에 난리와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물화는 한정이 있는데 저들의 요구는 끝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맞추어 주지 못하면 사나운 노기가 뒤따르며 침해하고 약탈하며 유린하여 前功을 다 버리게 될 것이니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이루는 바의 첫째입니다.

둘째, 일본측의 물화는 모두가 淫奢奇玩한 것으로서 손으로 만드는 무한한 것이요, 우리의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서 토지에서 나오는 유한한 것이므로, 저들의 풍속을 문란케 하는 사치스러운 공산품과 우리의 국민생명에 필수적인 농산품을 교역하면 수년 후에는 국토를 지탱할 수 없도록 나라가 황폐화될 것이다.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이 욕심하는 바가 물화를 교역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들의 물화는 대개가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스러운 노리개로서 손에서 생산되어 한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물화는 대개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서 토지에서 나는 것으로 한이 있는 것이니, 유한한 津液과 膏腴로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서 한없이 사치하며 기괴한 노리개 따위의 마음을 쯤먹고 풍속을 해치는 물화와 교역해서 해마다 반드시 巨萬으로써 해아리게 되면, 수년 후에는 우리 나라 국토는 황량한 땅과 쓰러져 가는 집들이 다시 지탱하여 보존하게 되지 못할 것이며 나라는 반드시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니,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바의 둘째입니다.

셋째, 저들은 왜라고 하지만 실은 양적과 다름이 없어서 일단 강화가 성립되면 천주교가 교역중에 들어와서 전국에 포교되어 衣裳(관습)은 타락하고 국민은 금수가 될 것이다.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양적입니다. 이 일이 한 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책과 천주의 초상이 교역하는 속에 혼합되어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전도사와 신자가 전해 받아 전국에 두루 가득찰 것입니다. 포도청에서 살피고 검문하여 잡아다 버리고 배려 한다면 그들의 사나운 노기가 또한 더하게 되어 강화한 지난 맹세가 허사로 돌아갈 것이고 내버려 두고 묻지 않으면 조금 지나서는 장차 집집마다 사학을 하고 사람마다 사학을 하게 되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 여기지 않고 신하가 그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의상이 시궁창에 빠지고 사람은 변하여 금수가 될 것이니,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바의 셋째입니다.

넷째, 강화 후에 저들이 국내에 상륙하여 거주하게 되면 저들은 얼굴만 사람이지 마음은 금수이므로 우리의 재산과 부녀를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며, 우리의 고관들은 화약을 깨뜨릴까 두려워하여 이를 막지 못할 것이므로 백성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강화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들이 육지로 내려와 서로 왕래하고 혹은 우리 강토 안에다 집을 짓고 살려고 할 것인데, 우리가 이미 강화했으므로 거절할 말이 없고, 거절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면 재물, 비단, 부녀의 攘奪과 挾取를 마음대로 할 것이니, 누가 이를 능히 막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얼굴만 사람이지 마음은 금수여서 조금만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고 누르기를 기탄없이 할 것인데 열부나 효자가 애통하여 하늘에 호소해서 원수를 갚아 주기를 바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화를 깨뜨리게 될까 두려워하여 감히 송사를 처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는 온종일 말하여도 다 들 수가 없으며 사람의 도리가 蕩然히 없어져 백성들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는 바의 넷째입니다.

다섯째, 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병자호란 때의 강화가 그 후의 평화를 가져온 예를 들지만 청은 夷狄이고 일본은 실은 재화와 여색만 아는 금수이므로 이적과는 화약을 맺을 수 있어도 금수와는 화호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의 일을 끌어서 말하기를, 병자년의 강화 뒤에 피차가 서로 좋게 지내어 삼천리 강토가 오늘에 이르도록 반석 같은 안정을 보전하였으니 오늘날 그들과의 和好가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는가 합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이는 아동들의 소견과 다름이

없다고 여깁니다…청나라 사람들은 뜻이 중국의 황제가 되어 四海를 무마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능히 다소나마 중국의 覇主들을 모방하여 인의에 근사한 것을 가장하였으니, 이는 이적일 뿐입니다. 이적들도 사람이라 곧 도리가 어떠한가를 물을 것이 없지만 능히 소로써 대를 섬기기만 하면 피차가 서로 사이가 좋아져서 지금까지 왔고, 비록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아량이 있어 침해하거나 학대하는 염려가 없었습니다. 저 왜적들로 말하면 한갓 재화와 여색만 알고 조금도 사람의 도리라고는 없으니 이는 곧 금수일 뿐입니다. 사람과 금수가 화호하여 함께 떼지어 있으면서 근심과 염려가 없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신은 그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니, 이는 강화가 난리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바의 다섯째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최익현은 개항을 해서 통상을 하는 경우에 도래할 수 있는 일본의 침략과 우리 나라의 손실에 대하여 매우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 폐해를 날날이 제시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그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농산물과 사치품이 주류인 손으로 제조되는 저들의 공산물을 교역하는 경우에 수년이 가지 않아서 우리 나라가 큰 손실을 입고 나라의 경제가 황폐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매우 날카로운 통찰이요 타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익현과 유림의 주장은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익현의 상소는 환급되었다. 그리고 이 상소로 인하여 그는 흑산도 귀양길에 올라 1879년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유배에 처해졌다.

그리고 집권세력은 1876년 2월 일본과 불평등조약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여 개항을 시작하였다. 개항추진세력은 유림이 주장한 ‘왜양일체론’에 대하여 ‘왜양분리론’으로 맞서면서 일본과의 강화를 3백년 이래의 구교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즉 “일본과 옛날의 호의를 잇는 것이지 서양과 화호를 닮는 것이 아니다”⁴⁾라고 한 고종의 말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었다.

우리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게 된 1870년대는 10년 전의 상황과 아주 달랐다. 1860년대는 병인양요를 계기로 일어났던 이항로로 대표되는 재야유림의

4) 《日省錄》176책, 고종 13년 1월 28일.

척화론이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집권세력은 유럽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거부, 양물금단과 같은 척사정책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병자년에 이르러 유럽의 주장은 국가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유럽과 집권세력간의 갈등관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870년대 통상요구나 불평등조약체결과 같은 대외적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나 그 이후는 대내적인 사회개혁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만큼 두 정치 집단간의 갈등의 폭과 강도가 더 심각해져 갔다.

2) 신사년의 위정척사운동과 척사·개화논쟁

1876년 문호개방이 단행된 이래 1880년대는 한국근대사에서 볼 때 개화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이 여러 가지 개화정책을 펴나간 시기이었다.

1880년 12월에는 통상과 외국문물 수용을 담당하기 위하여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다. 종래의 5군영을 2군영으로 통합하고 따로 신식 군대(別技軍)를 신설하는 등 군제도 개편하기 시작했으며 농업학교와 관영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등 각 방면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음해인 1881년에는 청나라에 領選使를 파견하여 군사기술을 도입하려 했고 일본에 紳士遊覽團을 파견하여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정책과 그 성과를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개화당이 정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굳혀 가고 있던 때였으므로 개화당 요인들은 기왕의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화이질서에 안주하는 조선왕조가 아니라 세계 속의 자주독립국인 조선을 건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구미제국과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였다. 그런 만큼 개화정책을 추구하는 집권세력과 보수적인 유교질서의 신봉자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던 유럽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갈등은 1870년대보다 더 격화되어 갔다. 왜냐하면 1870년대의 갈등이 주로 통상요구나 불평등조약체결과 같은 대외적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면, 1880년대는 이미 병자년 이래로 제도화된 개항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대내적인 국내의 사회질서의 개혁방향에 대한 것으로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외교사정과 국제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1880년 6월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갔던 김홍집이 귀국하였다. 귀국길에 김홍집은 당시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의 私擬冊子인 《조선책략》을 갖고 들어왔다. 그는 이 책을 고종에게 바쳤다. 고종은 여러 대신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하게 하였다.

《조선책략》은 李鴻章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황준헌이 당시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조선이 취해야 할 외교정책을 논술한 것이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⁵⁾

첫째, 동양 3국인 청·일·조선에 대해 위협적 존재인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하는 ‘親中國·結日本·聯美國’의 외교정책을 써서 부국자강을 꾀해야 한다.

둘째, 구미제국과 개국통상하여 안으로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셋째, ‘周孔의 道’를 지키는 조선이 천주교의 전교를 허용하더라도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넷째, 서양의 학문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을 중국·일본에 파견하는 한편 서양인 교수를 초빙해야 한다.

계속해서 황준헌은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취해야 할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⁶⁾

‘친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이 이를 믿고 있으나 ‘결일본’에 대해서는 반신반의일지 모르나 일본이 조선에 대해 사단을 일으킬 때에는 중국이 조선을 도울 것이며 더구나 일본은 현재 외양은 훌륭하나 실상은 재주가 없으며 정부와 민간이 싸움으로 사이가 벌어져 있고 국가의 금은창고가 비어 있어 조선침략 같은 것은 도모할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연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그 영역이 광대하고 工商을 주로 하여 천하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애초부터 영토적 야심이 없이 신의를 지키는 나라이므로 이와 연맹하는 것이 유리하다.

5) 韓祐勑, 앞의 글, 122쪽에서 재인용.

6) 위와 같음.

조정의 신하가 시무를 강구하여 다른 견해를 내세우지 않고 士夫가 적습을 타파하여 천박한 식견을 개도하고 국민이 분발하며 일어나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침으로써 나라가 강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임으로 조선의 흥망과 아시아의 대체적인 판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우선 조정은 ‘積習을 타파하고 淺識을 개도하기’ 위하여 《조선책략》을 복사하여 전국의 유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천박한 식견을 개도하며,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전국에 배포된 《조선책략》은 유럽 사이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개화를 반대해 온 유럽의 위정척사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유럽은 《조선책략》의 복사본이 반포된 직후인 1880년 10월부터 《조선책략》과 같은 불온문서를 받아 온 수신사 김홍집을 탄핵하고 《조선책략》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다. 다음해인 1881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규탄운동은 정부의 개화정책을 통틀어 탄핵하는 운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여기저기서 타올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영남유생들이 합심하여 올린 萬人疏이었다. 만인소는 1881년 2월 이퇴계의 후손인 영남유생 李晩孫을 소두로 하여 《조선책략》을 반대하기 위해 올린 유럽의 집단반대 상소문이었다.

만인소에서 유럽은 《조선책략》의 저자인 황준헌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논박하였다. 즉 중국과는 이미 2백년이 넘도록 신의를 나누고 있는데 皇이니 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일본의 국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중국에 대하여 해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일본은 우리의 육지와 해상의 요충지대를 이미 점거하고 있어서 우리의 무방비함을 엿보고 충돌을 일으키면 제지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미국은 본래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관계를 맺으면 그들이 우리의 신료를 괴롭혀서 재물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허점과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어려운 청을 하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우리에게 혐의를 갖고 있지 않는데 괜히 남의 말을 듣고 먼 곳에 기대고 가까운 곳에 도전하게 된다면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침입할 때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막기 위하여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힘을 합하며 미국과 손잡으라는 《조선책략》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로 러시아·미국·일본은 모두 이적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에도 차이를 둘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들어와 통상과 토지를 요구할 경우 조선은 강토를 수호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대저 중국은 조선이 그 藩邦으로서 2백년이 넘도록 신의를 교부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황이니 朕이니 하는 칭호로서 보내온 일본의 국서를 받아들인다면 만일 중국이 이로써 힐난하는 경우에 장차 어떻게 해명할 것입니까. 일본은 우리의 羈靡로서 육지와 바다의 요충지대를 이미 점거하고 있으니 우리의 대비가 없음을 보고 충돌을 자행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제지할 것입니까. 미국은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우리 신료를 폐쇄하여 재물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허점을 살피고 약점을 엿집어겨 어려운 청을 강요하거나 계속될 수 없는 경비를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응할 것입니까.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혐의가 없는데 공연히 타인을 믿음으로써 먼 나라와 친교에 기대어 가까운 이웃에 도전하게 되어 이를 구실로 러시아가 내침하면 장차 이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러시아·미국·일본은 모두 같은 오랑캐로서, 그 어느 곳에 후함과 박함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예에 따라 러시아가 땅을 요구하며 교역을 요구하여 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 밖의 여러 나라가 이와 같이 땅을 요구하며 강화를 요구하면 어찌 막겠습니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仇怨을 사서 적이 될 것이 러시아 한 나라 뿐이겠습니까. 만약 허용한다면 한쪽 귀퉁이 靑邱(조선)는 장차 국토를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황준헌의 책략대로 防俄策을 쓴다 하여도 러시아가 병탄침략하는 경우 만리 밖의 원조를 앉아서 기다리면서 京軍만으로 어떻게 방어해 내겠습니까(李晩孫, 〈嶺南萬人疏〉, 신사년 2월).

뿐만 아니라 만인소에는 《조선책략》에서 주장된 부국책과 야소교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서학에 종사하여 재화를 이루고 농업과 공업을 일으킨다 하지만 財用農工은 옛부터 좋은 법규가 있으므로 어찌 서학에 종사함으로써이겠습니까”⁷⁾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야소교 전래가 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邪教를 조선에 유포시키려는 간계이니 周

7) 李晩孫, 〈嶺南萬人疏 신사년 2월〉(韓祐勸, 앞의 글), 124쪽에서 재인용.

孔程朱의 교를 더욱 밝힘으로써 온 백성이 단결하여 사악하고 추한 무리를 물리쳐야 한다”⁸⁾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만손은 김홍집 및 정부 대신들에게까지 공격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리고 황준헌의 책을 물이나 불에 던져 버려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즉 “책을 수화에 투척하여 좋고 나쁨을 명시하여 사악하고 추한 무리의 간사함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예의의 풍속이 천하만세에 장차 할 말이 있을 것”⁹⁾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집단적인 반대상소에 대하여 고종은 “關邪衛正이란 근본방침에는 疏陳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의 私擬文子에 이르러서는 애초부터 탐구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유생들이 잘못 보고 들추어 내고 있으니 이 같은 聯疏를 다시 올려서 조정을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퇴거할 것”¹⁰⁾을 명하였다.

《조선책략》을 도화선으로 하여 일어난 서구열강과의 개국통상 문제는 조선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만민소 외에도 《조선책략》과 관련한 조선의 정책적 진로를 모색하는 내용의 상소가 많이 올라왔다. 그 중 무과에 급제한 洪時中의 상소에는 당시 인천개항을 중심으로 일본에 의해 강요되었던 수교의 성격을 비판하며 《조선책략》에 대하여 논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일본이 러시아가 두려워 우리와 화친한다면 일본의 약함은 이미 드러난 것인데, 약한 일본의 힘에 의존하여 일본과 화친하여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것은 크게 잘못된 방책이라고 비판하였다.

옛날의 일본과 교섭할 때 일본은 동래 한 곳에만 머무르고 그 關市의 규칙도 엄격하여 일본이 우리의 제약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은 마음대로 우리 나라 요충지대를 점거하고 해변에 기항하여 바다의 경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잘못해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 이는 우리가 일본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개항설시하고 稅規를 마련하여 아편, 사학의 책

8) 위와 같음.

9) 위와 같음.

10) 《日省錄》242책, 고종 18년 2월 26일.

등은 서로 讖捕하여 엄벌에 처하면 우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심은 巧術과 邪說과 영리에 빠져 들어 우미한 자는 아편을 좋아하고 傑傲한 자는 야소교서를 보고 미혹되어 결국 모두 아편을 복용하게 되고 사교에 물들게 되어 기포하고 법규를 적용한다 하여도 한갓 空文虛套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화친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이 진실로 러시아가 두려워서 우리와 화친한다면 일본의 약함은 이미 알 만합니다. 따라서 약한 일본의 힘에 의존하여 러시아의 내침을 완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日省錄》 243책, 고종 18년 3월 23일).

그리고 나서 홍시중은 이미 일본과 수교했고 사신왕래가 잦아서 국정이 다 누설된 이 때 일본을 엄하게 배척한다면 일본이 이것을 구실 삼아 사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본과의 수교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신교환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10년에 1회로 하고 왜관에 10일 이내로 체류하며 수행원을 10인으로 하고 이들이 왜관을 벗어나서 나다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인천 등 개항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합니다.

셋째, 통상을 제한하여 교역일을 월 2회로 하고 내항선 수를 2~3척으로 하고 교역품은 일본의 산품으로 하며 양화를 엄하게 금지하고, 물물교환만을 하여 화폐사용을 엄금하고, 미국·포목 등의 무역을 금지할 것이며 조선상인에 대하여 5할의 과세를 부과하여 무역을 억제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 유입되는 《중서건문》·《만국공법》·《조선책략》 등의 서양과 일본의 서적을 수거하여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日省錄》 243책, 고종 18년 3월 23일)

신사년의 위정척사운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만인소의 소두인 이만손은 3월에 다시 재소를 올렸다. 5월에는 경상도 유생 金淳鎭, 경기도 유생 柳冀永, 충청도 유생 韓洪烈이 상소를 올렸다. 윤7월에는 강원도 유생 洪在鶴, 충청도의 趙啓夏, 전라도의 高定柱 등의 수교반대상소가 쏟아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1881년 7월에 홍재학이 올린 만언소에는 당시 집권세력이 일본과 서양이 똑같은 폐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통상을 해온 것

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즉 일본과 통상해 온 결과 사설이 횡행하고 洋織과 양물이 온 나라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정척사는 정학과 대의를 위한 祖宗의 유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척사의 기반을 망각하고 主和賣國을 감행하려는 조정의 관료를 처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홍재학의 주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오늘날 온 나라에서 입고 있는 것은 양직이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양물이며 流涎하는 것은 洋技이고…또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온 나라에 邪書가 허다하고 충만하여 名士碩儒가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승훈·가환은 우리 나라의 洋夷이며, 耶蘇는 유럽의 양이이며, 花房義質은 일본의 양이입니다. 우리 나라의 승훈·가환은 선왕께서 이들을 사형에 처해 제거했는데 일본의 花房義質은 진하께서 이를 용납하고 집촉합니다. 용납하고 집촉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 말이라도 침범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귀양보내거나 쫓아 보내기에 겨를이 없고 힘을 다해 아첨하는 자는 벼슬을 높이고 은상을 내리기에 또한 겨를이 없으니 이는 세 분(정조·순조·헌종)의 聖王과는 남쪽과 북쪽으로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정척사는 정조 이래로 내려온 조정의 기본정책으로서 아직도 그 의리가 빛나고 있는데 고종친정 이래로 일본과 서양의 똑같은 해를 모르고 일본과의 통상을 주장해 온 결과 사설과 이의가 횡행하여 조선의 사태가 위급하기 비길 데가 없습니다. 孔孟程朱의 큰 도는 날로 사라지게 되어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는 예의가 허물어져 그 결과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국왕은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하려는 신료들을 처단해야 합니다(洪在鶴, 〈萬言疏〉, 신사 7월).

이와 같이 유림은 개국통상과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 개화세력에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당시 역사의 바퀴는 이들의 주장과 함께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 갔다. 집권세력은 국왕을 포함한 개화파관료 김홍집에 대하여 비판하고 나아가 권력의 정당성에까지 도전하는 유림에 대하여 강경하게 맞대응하였다. 유림에 대한 처단이 감행되었던 것이다.

만인소의 소두인 이만손과 홍시중은 유배의 형을 받았다. 만인소의 홍재학은 1881년 서소문밖 형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홍재학의 상소는 같은 화서문인인 김평묵이 대필하였는데, 이로 인해 김평묵도 문구가 극히 격렬하

다고 하여 조정으로부터 섬에 귀양보내졌다.

한편 과격하고 강경한 위정척사파의 왜양일체론과 집권세력의 개항명분론의 대립이 격화되어 갔던 1880년대에 유럽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상이나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당시 진행되던 근대적 역사의 흐름에서 강경한 위정척사만으로는 자주와 자강을 동시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일부 유럽은 서양으로부터의 이질적인 사교와 외세를 일단 부정하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양의 기예와 능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881년 6월 8일 전 장령 郭基洛가 올린 상소는 이와 같은 입장과 논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광기락은 요새 각도 유생들이 위정척사라는 명목으로 거듭 상소를 올려서 온 나라가 서학에 빠지고 양복을 착용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교대상으로서의 일본과 배척대상으로서의 서양을 각각 별개로 파악하였다. 곧 대일수교와 對洋斥洋을 분리시킴으로써 당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수교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척양의 한계를 사교라는 이질적인 서양의 종교 내지 문화로 규정하고 자강의 한 방법으로 서양의 기술 내지 문명 등에 대하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였다.

...우리가 일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양을 견제하려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본이 서양과 交好하고 양복을 입고 양학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교호하는 것은 다만 일본뿐이요 어찌 양이와 더불어 통하는 것이 되겠습니까...황준헌 책자는 우리와 관계되는 긴급한 적정 등에 대한 조치책이므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직 조정에서 정할 일입니다. 일본과의 수교는 옛부터의 교린관계와 천하통상의 현 정세에 비추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조치로서 자강을 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폐쇄된 내정을 개수하고 밖으로 외적을 막으면 됩니다...또한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기술이나 농서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면 반드시 택하여 행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해서 그들의 良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郭基洛, 〈疏陳時弊條〉).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1882년 5월 조미수호조약체결을 계기로

문호의 개방이 점점 확대되자 계속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들 주장도 다양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즉 直講 朴淇鍾의 西器이용책을 비롯하여, 鴻山유학 趙聲敎의 이용후생론, 출신 鄭暎朝의 문호개방론과 산업진흥책, 전주사 柳完秀의 기선건조론, 廣州유학 趙汶의 기술교육론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조선이 종래의 동양적인 ‘사대교린’의 국제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관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가안위와 결부된 위기의식이 더욱 팽배해져 갔기 때문이었다.

1882년경 이러한 주장을 담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유림의 상소들을 보면, 우선 박기종은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그것을 멀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器는 이로운 것으로 진실로 이용후생이 될 것인즉 농상·의약·甲兵(무기)·舟車 따위는 어찌 이것을 가려서 하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¹¹⁾라고 말하였다. 조성교도 또한 “서양의 기계는 耕織이나 兵備에 편리하므로 이것을 배우면 국민의 이익이 될 만하다”¹²⁾고 그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정영조는 우리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없으므로 국제적 신의에 의존하여 독립을 유지하려면 각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문호개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무역진흥·외화획득으로 서양산물을 직접 생산하자는 산업진흥책을 제안하였다.

...지금 동서남북 수교관계가 폭주한 가운데 각국 화폐가 유통되고 있으니 서로 편리하고 우리 나라의 常平錢이 나가면 타국의 화폐가 들어와 財幣가 극히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화차·화선·기계·전선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承政院日記》, 고종 19년 9월 14일).

광주유학 조문도 “오늘날 이 땅에 와 있는 외국군대의 군비와 그 병기는 본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 공예의 묘함과 상업의 번성과 의약의 기술 등은 그 정수와 묘리를 취한다면 국민들이 모두 충분히 그 재예를 습득하고 그 기술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¹³⁾라고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11)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9월 5일.

12) 위와 같음.

출신 尹善學도 “서법이 나오자 그 기계의 정교함, 부국의 계략은 비록 주 나라를 일으킨 呂尙, 촉나라를 다스린 제갈공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과 더불어 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들 배·차·군·농기계 등과 같이 국민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한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것으로 국가에 유리합니다. 고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器이지 결코 그 道가 아닙니다. 그러니 준재들을 뽑아 기계 만드는 관서를 두고 외양에 출입시켜 그 제조법을 배워서 급속히 그 효용을 보게 하면 그 才智함과 정교함이 다른 나라보다 능가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¹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더욱 발전하여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었다. 1882년 9월 22일 유학 高穎聞이 올린 시무상소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었다. 그는 서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근대적인 여러 가지 서양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즉 의사당·상회소·국립은행·해군순사제를 특별히 설치하고 채광 및 화폐정책을 실시하며 관제·세제·녹봉제의 혁신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기술의 도입입니다. 서양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우선 그 풍물을 살펴서 우의를 신장시키고 거기서부터 기술교사를 청하여 우리 나라 상하 인민들에게 새 기술을 습득시켜야 합니다.

둘째, 公議堂의 특별한 설치입니다. 정부 밖에 따로 공의당을 특설하여 시무에 밝은 인사들을 널리 구하고 참여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정사를 돕게 해야 합니다.

셋째, 채광·통화정책의 실시입니다. 법에 따라 채광을 장려하고 三幣를 점차 제한없이 계속 유통시켜서 화폐유통을 성하게 함으로써 遊食者를 없애야 합니다.

넷째, 巡査制의 실시입니다. 5家編法으로 50호를 1區로 하고 구마다 구장 1인을 선정하여 구장 아래 구마다 4명의 순사를 두어 도적·水火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회소·국립은행의 설치입니다. 서울 안에 큰 규모 상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利路便否를 상의케 하고 그 손해에 따라 진세토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해군의 특별한 설치입니다. 인천은 삼남의 漕軍의 요충이며 京師海

13)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9월 20일.

14) 《日省錄》 263책, 고종 19년 12월 22일 무신.

門의 咽喉이므로 해군을 특설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세법개정입니다. 冗職을 대폭 없애고, 雜貢은 신식세법으로 하며, 녹봉을 후하게 정하되 길을 넓게 열어서 搢紳士庶로 하여금 각기 그 업에 안정시켜야 합니다.

(《日省錄》 260책, 고종 19년 9월 22일 을사).

이와 같이 유림의 일부는 서양의 기술과 법,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다양하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이른바 ‘東道西器論’ 또는 ‘採西論’이라고도 한다. 용어가 암시하듯이 이 입장은 기존의 유교적 지배이념과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발달한 산업, 군사기술 및 상공업제도를 도입하자는 절충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위정척사론의 기반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민족의 자존을 도모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민족의 자강을 위한 서양기술의 도입, 채용을 용인하였던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입장을 ‘척사적 채서론’¹⁵⁾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집권세력이 여러 가지 개항정책을 정치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던 이념적 지지기반이 되었다. 즉 정부는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기존의 유교적 지배이념과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발달한 산업, 군사시설 및 상공업제도를 도입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 입장은 그대로 발전하여 1894년 갑오경장을 전후로 개화와 함께 자주를 강조하였던 온건개화파의 자주개화사상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880년대의 위정척사운동은 위정척사이념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강의 방법론에서 분화되어 갔다. 즉 한편으로는 왜양일체론에서 일본 및 서양과의 전면적인 개국통상을 반대해 온 강경한 위정척사파가 온존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왜양분리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양과 서양의 기술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고 일본과의 수교와 서양기술의 도입을 주장하는 척사적 채서론이 새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강을 둘러싼 방법론으로서의 이러한 분화가 더 이상 진전하여

15) 洪淳稔, 《韓末의 民族思想》(探求堂, 1982), 172~173쪽.

위정척사운동의 조직이나 이념상의 분화나 해체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1890년대부터 조선에 밀어닥친 민족모순이 너무 급박하게 전개되어 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사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차이보다는 제국주의적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내는 것이 중요한 역사적 단일의 과제로 되어 갔다. 따라서 강경한 입장의 위정척사파와 척사적 채서론의 위정척사운동도 결국은 외세를 배척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큰 흐름으로 변용, 합류되어 갔다.

〈文昭丁〉

3. 위정척사운동의 영향과 의의

(1) 위정척사운동의 영향

병자·신사척사운동으로 그 절정에 달했던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운동과 그 이후의 국내외 항일독립운동의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선 말기에 일어난 의병운동은 1894년의 동학혁명이 실패하자 흩어져 분산되어 있던 농민군의 잔존세력을 규합하면서, 위정척사론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흔히 일부에서는 위정척사에 대해서 고루한 유학자들이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조선을 침략하여 군대를 투입하고 무력으로 강점을 시도했을 때,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일의병이 일어났는 바, 이러한 항일의병은 한국의 근대적인 민족주의역사에서 중요한 조직적 이념 및 실천운동이 형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러한 항일의병의 선봉이었고, 이론적 지주가 된 사람들은 바로 대부분 위정척사론자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의병운동은 그 전개과정에서 군대 및 평민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하여 점차 그들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어 갔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의병운동 그 자체는 주자학적 척사론을 사상적 동기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또한 위정척사론자들이 그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수행된 것이다.¹⁾ 일찍이 조선 후기 위

정척사사상과 운동의 초석을 놓았던 화서 이항로가 동부승지직을 사양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외세의 침입을 막고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의병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義旅制度를 두어 국난극복에 임할 것을 제창한 바 있는데, 조선 말기에 일본의 무력침략이 시작되자 위정척사론자들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도 하겠다.

이 같이 조선 말기에 의병운동이 위정척사론자들의 주도하에 발흥하여 전개되어 나갔다는 점은 초기와 중기의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의병장들의 인적 구성과 그 사상적 계보를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예컨대 초기 의병운동에 있어 중요 의병장의 구성을 보면 강원도 춘천에서는 이소응, 충청도 제천에서는 유인석이 일어났으며, 경상도에서는 선산에서 허위, 진주에서 노응규 등이 기병했고, 전라도에서는 기우만 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중기 의병은 1905년 11월의 을사보호조약을 계기로 원용팔·민종식·최익현 등이 봉기하였다. 이들 가운데 유인석·노응규·최익현은 그 사상적 계보를 화서에 두고 있으며, 전라도에서 일어난 기우만은 화서와 함께 조선 후기 위정척사사상의 양대 지주를 이루었던 노사 기정진의 손자로서 그 역시 사상적 뿌리는 위정척사사상에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보면 1907년 8월 이후 후기 의병운동에 접어들면서 의병장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1895~1896년의 초기 의병운동과 1906년 단계의 중기 의병운동에 있어서 위정척사론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으며 또한 선도적인 것이었다²⁾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위정척사계열의 국권회복운동은 후기 의병항쟁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 그 활동과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즉 위정척사사상과 그 운동은 1906년 6월 최익현 의병부대의 좌절 이후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여 갔으나, 이는 표면적으로만 그러할 뿐 내실에 있어서는 해외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계속 끈질긴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 심화되어 갔다. 말하자면 국내에

1) 姜在彦, 《韓國近代史研究》(한울, 1983), 347쪽.

2) 姜在彦, 위의 책, 346쪽.

서의 위정척사운동은 국권회복의 계기적 국면의 변화에 따라 적응하면서 발전되어 마침내는 해외 항일독립운동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내 의병운동이 독립군 전투부대로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간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1909년 여름 이후 일본군의 남한대토벌과 일본의 조선병합으로 국내에서의 의병항쟁이 어려워지자 많은 의병들이 집단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에 근거를 두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렇듯 해외에서 근거지를 확보하고 국내 의병운동을 독립군 전투부대로 연결, 전환 시킴에 있어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 다름아닌 위정척사사상의 거봉 유인석에 의해 주도된 의병부대이었기 때문이다.³⁾

유인석은 백두산 일대의 지리적 조건이 유리하고 무장투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이 용이하며, 나아가 유사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에 좋은 국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곳을 거점으로 하는 근거지 이론과 장기적 구국투쟁의 전략을 내세운 후,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10년 6월 13道義軍을 조직하였다. 이 13도의군은 국내외를 망라하여 계몽운동가와 의병운동가가 합류된 전민족적 연합의병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총재에는 유인석이, 그리고 참여인물로는 이범윤·우병렬·이진룡·이갑·홍범도·안창호·이상설 등이 망라되어 있었다.

이 13도의군이 실제로 항일구국운동에 어떤 가시적인 공헌을 하였는가는 별도로 논의될 일이지만, 아무튼 1920~30년대에 백두산에 연결되는 북간도와 서간도의 산악이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지가 되었던 점을 보면, 조선 후기 화서 이항로와 노사 기정진에서 비롯되어 증암 김평묵과 성재 유증교 및 면암 최익현을 거쳐 의암 유인석에 이르는 위정척사사상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을 보전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있어 그 원동력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 갔다고 하겠다.

(2) 위정척사운동의 의미

이렇듯 조선 후기 서구와 일본세력의 침입에 대항하여 일어나 의병운동으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 : 의병항쟁사(1970), 657쪽.

로 동태화된 후 마침내는 항일구국운동으로 발전되어 간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이 오늘날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위정척사론은 조선 말기 서구열강과 일본세력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서 조선왕조 정치체제와 민족주체성의 보위를 위해 가장 강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사상과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개국을 전후한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왕조 정치체제는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 모두에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아 급속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왕조 정치체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폐정과 정치체제의 내재적 모순이 심화되어 한계에 이르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말하자면 개항 직전의 정치사회적 구조는 조선왕조 정치체제가 이상으로 삼았던 天命德治의 명분과는 거리가 먼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고, 체제유지에 기여했던 요소들, 즉 왕실, 외척, 그리고 관료를 포함하는 사대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 기반으로 했던 체제의 안정은 급속히 와해되어 갔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삼정의 문란이 구조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 체제의 균열이 이미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자, 조선왕조 정치체제는 점차 그 질서와 균형을 상실해 가는 동시에 계속 약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미 내부적으로 분해과정을 걷고 있던 조선왕조 정치체제를 향하여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 대외적 측면에서 가해지고 있었으니, 다름 아닌 서세동점으로 일컬어지는 서구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었던 것이다. 당시 서구의 국가들은 이미 산업혁명을 완수하고 근대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 바, 이들은 처음에는 자생적인 변모과정을 겪으면서 내재적 민주독립을 성취한 국가들이었으나, 나중에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국가로 변신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당시 통상이나 이권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제기하고 이러한 요구들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외교·군사적 행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이러한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왔는데, 여기에 더하여 조선왕조 정치체제를

더욱 괴롭힌 것은 조선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타율적으로 외세와 교섭했던 청나라와 일본이 서양세력을 모방하거나 그것에 가세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해왔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1869~1876년에 걸친 書契문제, 1876년의 ‘병자수호조규’문제, 1880년의 황준헌의 《조선책략》문제, 같은 해의 통리기무아문 설치문제 등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왕조 정치체제에 역사적 충격을 던져 온 대외적 변수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왕조 정치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 도전에 부딪쳐 상당히 급속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모순과 도전에 대한 조선왕조 정치체제 내부의 대응 양상은 크게 몇 가지 사상 내지 운동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위정척사사상·동학사상·동도서기사상(채서사상),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개화사상 등이 그것이었다.⁴⁾ 이 중에서 개화사상은 자기의 정체를 정립하기 이전에 근대화를 먼저 서둘렀던 오류를 범했는가 하면,⁵⁾ 동학은 끝내 종교적인 민중동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⁶⁾ 동도서기의 사상은 성리학적인 기초 위에서 아직 서양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어설픈 서양문물의 수용을 논한 무리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위정척사론은 조선왕조 500년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정통적인 성리학의 맥락에서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보위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이며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 또 실제로 이 사상과 운동은 외세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강하게 저항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외세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 후기 위정척사론의 본질은 힘에 의해 밖으로부터 불평등을 강요당하는 이른바 주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

4) 韓興壽, 《近代 韓國民族主義研究》(延世大 出版部, 1977), 70~73쪽.

5) 裴成東, 〈朝鮮 末期의 政治體制〉(《韓國政治學會報》 10, 1976), 55~71쪽.

文丞益, 〈韓國 近代政治思想의 論理的 性格〉(《韓國政治學會報》 10, 1976), 159~167쪽.

6) G. Hend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68, pp. 63~71.

7) 李澤徽, 〈朝鮮 後期 斥邪論議의 展開와 그 意義〉, (韓國政治外交史學會, 《朝鮮朝 政治思想研究》, 평민사, 1987), 164쪽.

라는 민족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그 민족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⁸⁾는 평가는 일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은 그 기저에 수구적이고 모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위정척사론이 비판받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할지라도 이 사상과 운동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철저한 자주와 배외의 정향은 한국 근대민족주의의 원류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무엇보다도 위정척사운동은 민족자주와 주체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강력한 민족주의적 애국애족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의 민족의식적 뿌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상적 근원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조선왕조의 성리학사상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조선 말기에 나타난 위정척사론에는 성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강력한 주리적 경향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는 민족자존의 의식을 간직한 것이었다. 예컨대 화서와 중암은 주리이원론과 理主氣客의 입장에서, 그리고 노사는 유리론적 理主氣僕의 입장에서 각각 이기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공통된 관점은 理尊氣卑의 논리 위에서 조선왕조의 체제와 문화를 이로 보고 외세를 기로 규정하여 이에 대처하려는 자존적·자기수호적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정척사운동의 민족자존과 자주주의 이념적 정향은 서양의 자본주의적 팽창에 따른 민족의 경제적·문화적 피해를 염려한 위정척사론자들의 경고와 대비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한편, 세계 열강들의 각축 끝에 일본이 최종 침략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 행동을 노골화하자, 위정척사론은 척사의 대상을 왜양일체의 관점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이에 맞서는 구국운동을 상소운동이나 의병운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하여 형성, 발전된 위정척사운동의 민족자존과 자주의식은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적극적 저항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후일 항일 민족주의운동의 한 연원을 이루어 내게 되었던 것이다. 위정척사사상과 운동

8) 崔昌圭, 〈斥邪論과 그 性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6, 근대:개화·척사운동, 1975), 334쪽.

은 원래 화이의식을 기초로 하는 모화적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말의 변천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자신을 심화, 발전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자존과 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으니, 우리 민족의 민족주체성의 계보는 이 위정척사사상과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⁹⁾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조선 말기에 있어서 민족적 자주성과 자의식을 기초로 하는 민족주의의념의 형성에 관한 논의는 단호한 배외적 민족주의의념으로서의 위정척사사상에서, 그리고 위정척사사상에 이념적 바탕을 둔 의병운동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정척사운동은 외세와의 단절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폐쇄적 척화만을 고집한 수구적 운동이 아니라 우선 국력을 배양하여 외세의 도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자강아사의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근대적 시각에서 보면, 위정척사사상이나 운동이 서양을 금수로 인식하여 척화를 주장하고 양물을 奇技淫巧로 단정하여 배격한 사실은 아무리 그러한 주장의 이론적 근거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폐쇄적인 수구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상과 운동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초기의 척사론자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을 등한시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근대적 정치행태에 집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정척사운동이 반동복고적이었고 폐쇄적 수구성에만 떨어진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초기의 위정척사론은 폐쇄적 배타성을 강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수적 수구성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개국 이후 특히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민족적 일체성에 의한 국민의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체제의 자율과 자존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

9) 洪淳稷, 《韓末의 民族思想》(探求堂, 1982), 54쪽.

하는 방향으로 이념적 정향을 확대시켜 나갔으니, 궁극적으로는 국내외적 정치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보위와 민족의 자존을 지향했던 진정한 민족자주의 사상과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위정척사운동은 노도처럼 밀려오는 외세의 도전에 부딪쳐 대책없이 독을 터놓음으로써 홍수에 휩쓸려 들어가는 일을 당하기보다는, 먼저 제방에 수문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수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주체적인 변화를 도모하자는 운동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제방에 수문을 만드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내수를 통한 자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며, 적절히 수량을 조절하면서 주체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일이란 무조건적인 수구적 폐쇄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변동에 적절히 적응,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위정척사운동은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고루한 운동이 아니라 조선왕조 말기의 변천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심화, 발전시키면서 자강아사의 논리를 통해 주체성의 위기를 자율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민족자존과 자주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李澤微〉